

SECTOR UPDATE

2026. 8. 27.

리서치센터 Innovation팀

강영훈, 선임연구원

yeonghoon.ka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

이경자 팀장, 수석연구위원

kyungja.lee@samsung.com

홍주미 연구원, Research Associate

jumi14.hong@samsung.com



대체투자

VC: 정책 펀드가 견인하는 AI 애플리케이션 성장

삼성증권

VC시장, AI 인프라에서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장기 침체였던 국내 VC(벤처캐피탈) 시장은 풍부한 자금 유입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인은 국민성장펀드의 '정책성 펀드'에 의한 자금 유입입니다. 7월, 4조원 규모의 VC 펀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장기간 집행이 뜸했던 연기금/공제회도 최대 규모의 출자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신규 투자는 역대 최대인 9조원에 근접했는데, AI 관련 업종에 절반 이상이 쏟렸습니다. 초기에는 LLM 위주의 투자였으나 점차 섹터 확산 및 투자 대상 선별이 시작돼 AI 애플리케이션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 정책 펀드 중심의 VC시장 구조를 고려한다면 향후 투자의 중심은 산업용AI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VC 투자의 주류인 AI 업종 내에서도 무게 중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AI 산업의 경쟁은 Scale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중심이었고 막대한 자본은 파운데이션 모델, AI 반도체(NPU, GPU),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며 AI 생태계의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델 성능은 상향 평준화되고, API 비용 하락으로 AI 활용 장벽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VC 투자자들이 관심이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는가?"였다면, 이제는 "누가 AI를 통해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가?"라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이동이 뚜렷합니다.

AI 투자의 다음 단계는 활용 영역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Agent'와, 2) 디지털 화면에서 나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Physical AI'가 핵심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AI Agent는 업무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ROI 개선 효과를 제공하며, Physical AI는 제조·물류·국방 등 산업의 노동력을 보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글로벌 VC 투자는 이미 AI Agent와 Physical AI로 확장되고 있으며, 차세대 AI 유니콘 역시 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Agent와, 노동력을 대신해줄 수 있는 Physical AI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VC 투자의 Next Chapter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VC 활성화는 긍정적이나, 코로나19 당시 무차별한 밸류에이션 상승과 반락의 학습 효과로 초기 단계보다 후기 단계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 축소의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소수 메가딜의 IPO만 이뤄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엑시트 장기화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금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기에 이제 관건은 개별 기업이 성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VC 펀드 만기는 7년 내외이지만 개별 기업의 성장(커브)은 8년 차부터 그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초장기 펀드 및 세컨더리 전략의 도입 논의 또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구조적 병목은 남아 있지만 자금 여건 개선과 장기 전략 논의는 VC시장이 다음 성장 국면으로 이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ECUTIVE SUMMARY

VC 환경

-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목표하에 국민성장펀드 가동 시작, 간접 투자 분야 정책성 펀드가 VC 펀드에 출자 지원
- 7월까지 1,2차에 걸쳐 4조원 규모의 VC 펀드 결성 확정. 이에 힘입어 국내 VC 펀드 결성액은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연기금/공제회도 7월부터 그간 저조했던 VC 출자 재개. 6개 기관 합산 8,2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기금 시즌 도래
- 금융권 자본 규제 완화로 VC 및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규제 완화, 향후 VC 자금 조달은 큰 폭 증가할 전망

투자 와 엑시트 시장

- 풍부한 VC자금 조달에 힘입어 상반기 신규 투자액은 8.9조원으로 역대 최대, AI 관련 업종에 총투자의 51%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 VC 투자 트렌드는 2019년까지 O2O/핀테크,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이커머스를 거쳐 2024년부터 AI 붐 시작, 초기에는 LLM 위주
- 섹터 확산 및 투자 대상 선별 시작, 산업용 AI 서비스에 관심 집중.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정책 금융 중심의 VC 특성이 결합된 결과
- 활발한 자금 및 투자 시장과 달리 회수 시장은 아직 저조. 고금리를 겪으며 후기 단계에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

Agent AI

- AI 모델 성능 상향 평준화와 토큰 API 비용 하락으로 산업의 가치는 모델에서 활용 영역으로 이동하며 AI Agent 시장 본격 개화
- 기업들은 단순 AI 도입보다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등 측정 가능한 ROI를 요구하기 시작하며 Agent 수요 확대
- 빅테크가 범용 Agent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산업별 데이터·전문지식·워크플로우를 보유한 Vertical Agent가 차별화된 영역으로 부상
- Harvey는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로 계약 검토·리서치 등 복잡한 법률 업무를 자동화하며 빠르게 성장, 기업 가치 110억 달러 기록

Physical AI

- AI는 디지털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Physical AI 시대로 진입하며 적용 범위가 SW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
- 글로벌 Physical AI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자율 드론, 국방, 오프라인 AI 등으로 영역이 확대 중
- 국내는 특성상 산업 B2B용 로봇 투자가 높은 편. 다만 자율주행 및 소비자 대상 일상 서비스 사례는 아직 제한적
- Apptronik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Apollo', Rhoda AI는 비디오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Physical AI 기업으로 주목

전망

- 풍부한 정책 금융은 침체였던 VC시장에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 단, AI 관련 산업에 자금이 쏠리며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음
- 자금 기반은 풍부, 이제 관건은 장기간 기업 성장에 동참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세컨더리 전략, 초장기 펀드 도입 논의 예상
- 법률·의료·제조·공공 등 현지화 및 데이터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AI Agent 생태계가 확대되며 정책 지원도 강화될 것
- 제조업 경쟁력 및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로봇뿐 아니라 국방, 산업 자동화, 일상 적용 등 Physical AI 생태계도 본격 확장될 전망

자료: 삼성증권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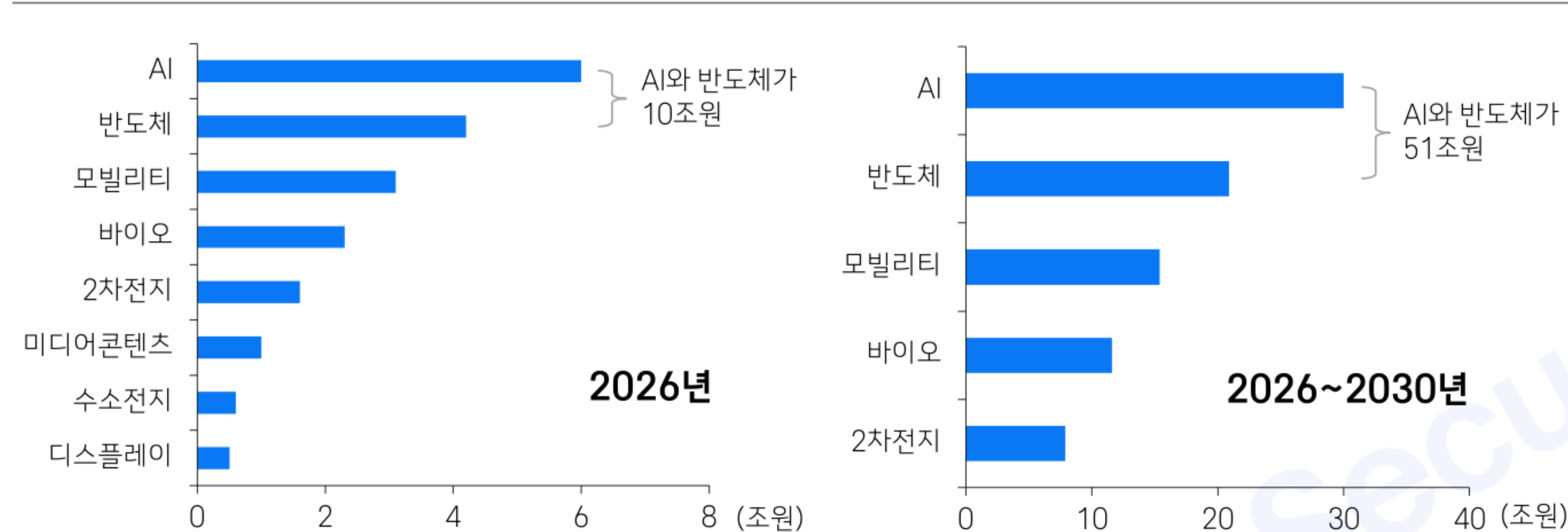
VC 유동성 증가, 투자 대상은 쏠림

Samsung Securities

1) 자금 모집

① 정책 드라이브 -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2026년 섹터별 배분 및 5년 배분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별 내용

트랙	기금(5년)	민간(5년)	상세 내용
① 직접 투자 (에쿼티)	7.5조	7.5조	중소기업 및 대규모 공장 증설 SPC의 증자 참여, 기술기업 M&A 지원. 민간 투자자와 1:1 매칭. 기업당 3,000~5,000억원
② 간접 투자 (정책성 펀드)	7.5조	27.5조	블라인드 펀드(3.9조 70%)+프로젝트 펀드(1.7조 30%). 지방전용 펀드 2,000억, 국민참여형 7,200억. 공공 자금 비중 평균 40%(최소 20%). 초장기기술투자 펀드 8,800억원 이상. 스케일업 전용 펀드 5,000억 등
③ 인프라투융자	10.0조	40.0조	전력망·발전·용수·시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기금·재정은 고위험 지분 투자·후순위 대출, 민간은 공동 대출
④ 초저리 대출	50.0조	-	국고채 수준 2~3%대 금리(5~10년), 역마진은 산은 부담. 대규모 설비 투자·R&D 자금 대상 (운영 자금·기존 차입금 상환 제외)·첨단기금 장기(18~19년) 저리 대출
합계	75.0조	75.0조	

참고: 200조원으로 증액 전 수치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목표를 구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성장펀드 가동 시작. 2026년부터 40조원씩 5년간 투입 계획(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연 10조원씩 증액 결정)
- 산업은행이 조성한 '첨단 전략 산업기금'이 투자 되면 국민성장펀드 지원 사업으로 인정
- 재정과 산은이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 감당,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 경감
- 지원 대상인 첨단 산업 내 AI 및 반도체가 51조원 이상으로 최대

1) 자금 모집

① 정책 드라이브 - 생산적 금융

-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 투자 분야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 벤처·중소형 기업에 자금이 도달하는 경로
- 2026년 7월까지 1,2차로 나누어 총 4.0조원 규모의 VC 자펀드 운용사 선정
- VC 특화 리그(코스닥, 소형, 도전, AI 반도체, 소형)와 PE 특화리그(대형, M&A, 중형) 혼재. 순수 VC는 1.5조원으로 추정
- 향후 VC 펀드만 분리 계획도 검토 중
- 선정된 GP 대부분이 목표 결성액의 2배 수준으로 민간자금 모집을 조기 마감, 하반기부터 투자 본격화로 VC 투자 시장 활기 예상

국민성장펀드 VC 펀드 1차 선정 (5월, 2.4조원) 81개사 지원

리그	규모	선정 운용사
대형	1조원	스카이레이크·에이티넘인베스트
AI·반도체(중형)	4,000억원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인터베스트
M&A	3,000억원	웰투시인베스트먼트
프로젝트(위탁)	2,400억원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소형	2,000억원	아주IB투자·파라투스인베스트
코스닥	1,500억원	미래에셋벤처 투자·브레인자산운용
도전	1,500억원	삼호그린인베스트·에이스톤벤처스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2차 선정(7월, 1.6조원), 65개사 지원

리그	규모	선정 운용사
중형(2~4곳)	2,000억~4,000억원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우리벤처파트너스·한국투자파트너스
스케일업(신설)	5,000억원	스틱인베스트먼트
AI·반도체(소형)	1,000억원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지역 전용(2~4곳)	500억~1,000억원	SBI인베스트먼트, KB증권·에코프로파트너스 컨소시엄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1) 자금 모집

② 연기금/공제회 - 최대 규모 출자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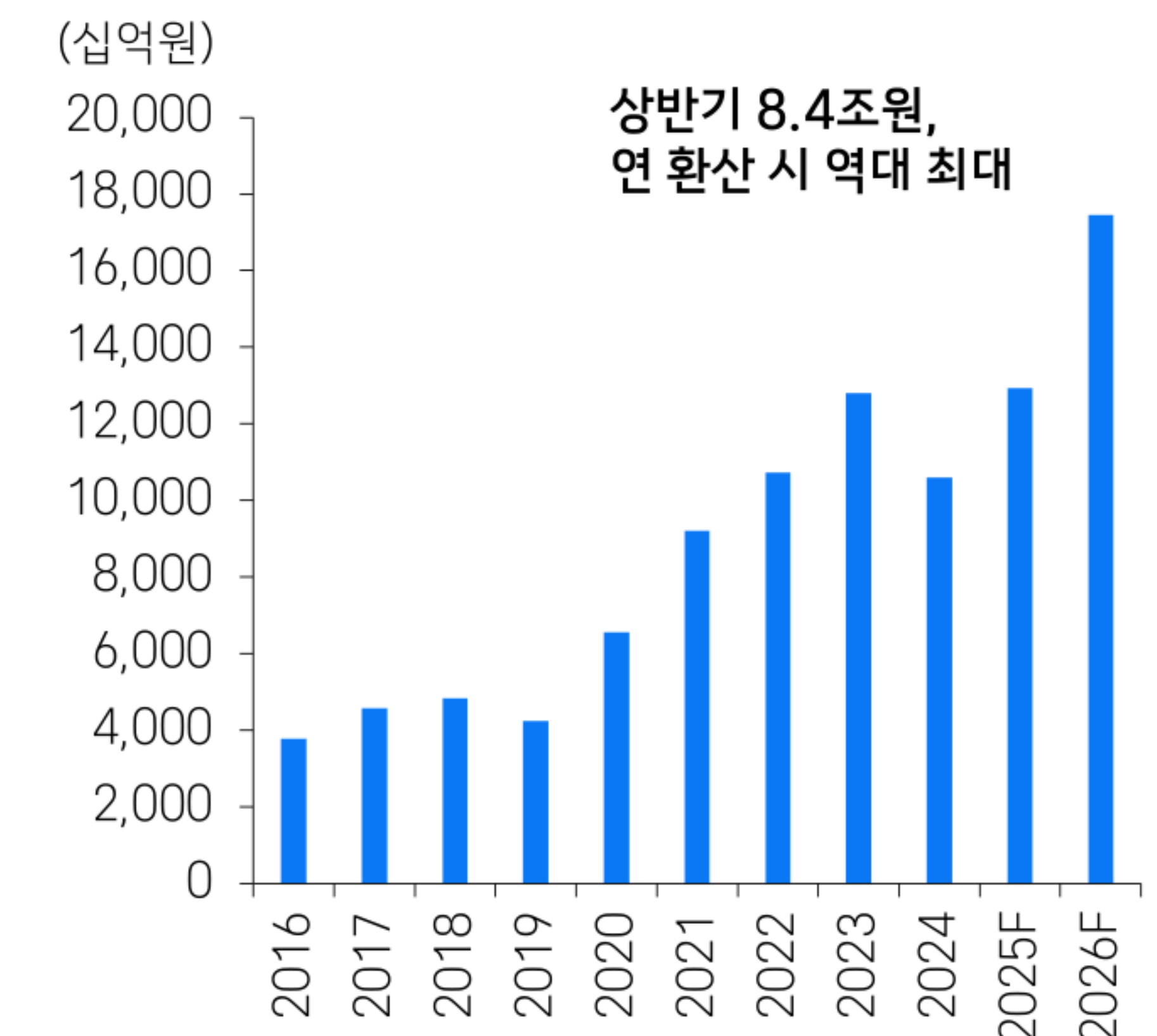
- 연기금 및 공제회도 7월부터 VC 출자 재개, 6개 기관 합산은 현재까지 8,2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기금 시즌
- 장기간 연기금/공제회는 국내 VC에 저조한 투자. VC시장에 이들을 포함한 정책 금융 비중은 2016년 40.2%에서 2022년 25.3%로 하락한 바 있음
- 신규 VC 펀드 결성은 2026년 1분기 4.4조원으로 전년대비 31%, 상반기 8.4조원으로 33%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국민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일부 연기금/공제회는 VC 출자 가이드라인에 AI 밸류체인 투자 의무를 명시하는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 하반기 연기금/공제회 자금이 풀리며 역대 최대 수준의 펀드 결성 예상

2026년 하반기 연기금/공제회 출자 및 계획

기관	출자 규모	운용사(GP)	비고
국민연금	최대 4,000억원	미래에셋벤처 투자·에이티넘인베스트·파트너스인베스트·프리미어파트너스·SL인베스트먼트·인터베스트	핵심 인력 겸업기준 완화, 14개사 경쟁
한국교직원 공제회	1,000억원	중형 3곳(각 최대 200억), 소형 4곳(각 100억)	최대 7개 운용사 선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1,000억원	5개 운용사	3년 만에 VC 블라인드펀드 출자 재개
군인공제회	1,000억원 (VC, PE포함 총 4,000억)	10곳 안팎	
경찰공제회	600억원	3개 운용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최대 600억원	3곳 안팎, AUM 3,000억 이상만 지원가능	출자금의 200% 이상 AI 밸류체인 투자 의무

자료: 각사, 삼성증권

국내 신규 VC 펀드 결성액



참고: 2025년은 3분기까지 공식 수치를 연 환산한 것
2026년도 1분기 수치를 연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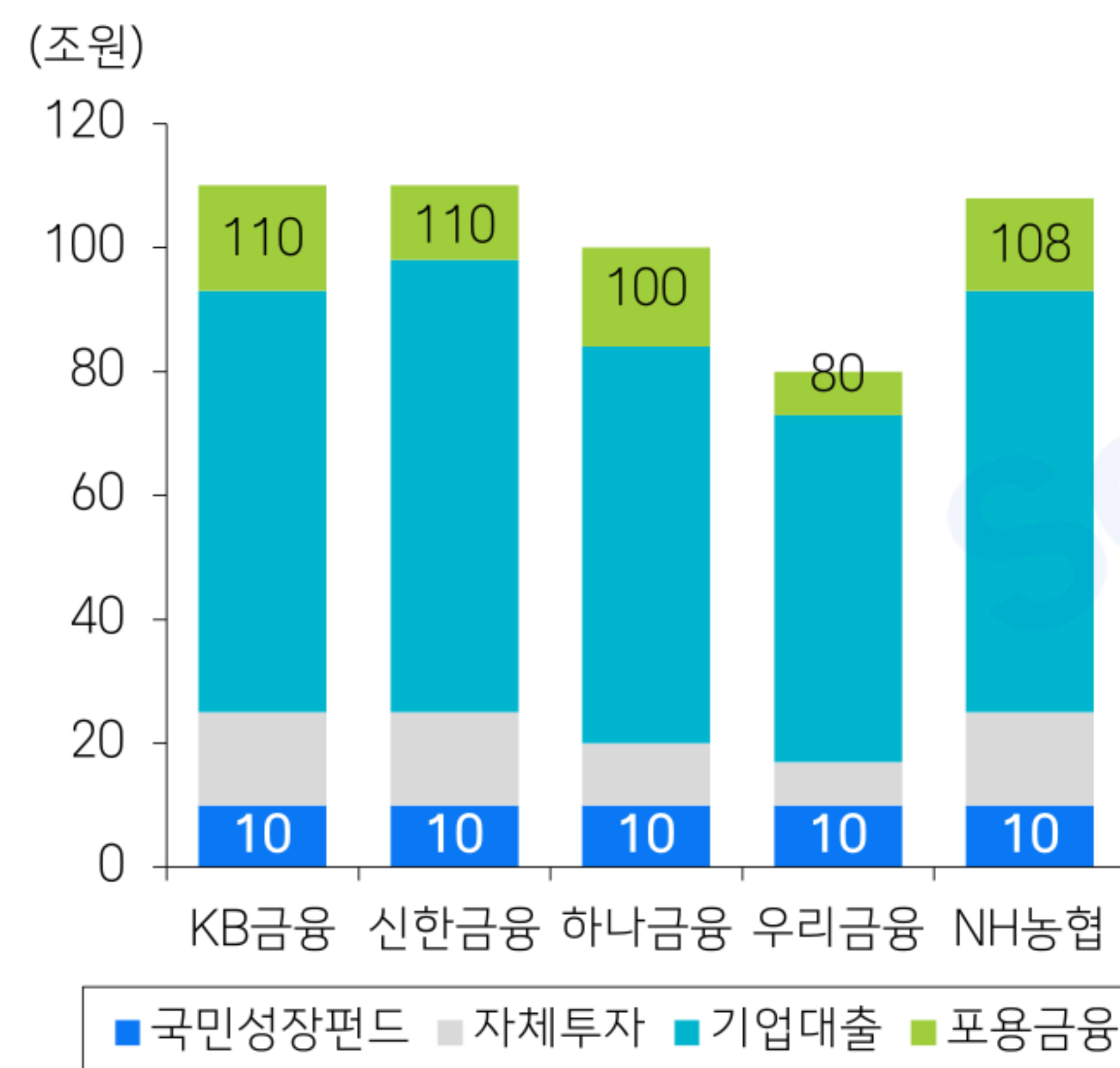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 삼성증권

1) 자금 모집

③ 금융권 자본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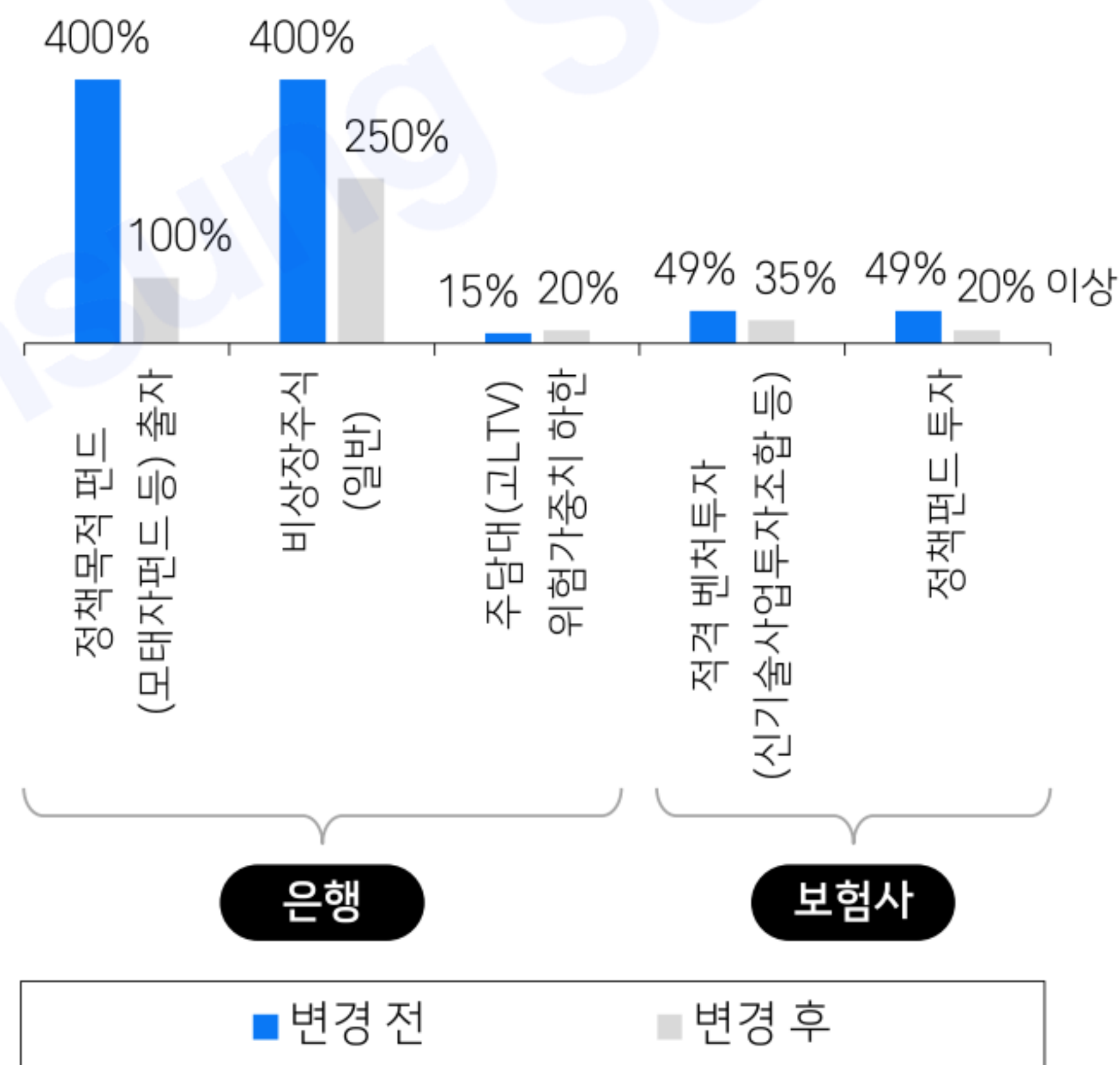
-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참여 결정, 민간 재원 75조원 중 67%를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
- 별도로 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향후 5년간 총 508조원을 투입할 계획, 첨단 산업에 투자 시 생산적 금융 실적으로 인정
- 4월, 금융위는 은행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정책목적 펀드 출자 시 위험 가중치를 기존의 400%에서 100%로 인하 등 VC 투자에 용이한 금융 환경 마련
- 이로써 은행권 74.5조원, 보험업권 24.2조원 등 최대 98.7조원 규모로 추가적인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 확보
- 벤처 및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 부담을 완화해 기관 투자자의 모험 자본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 VC 투자 시장 견인

금융지주별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공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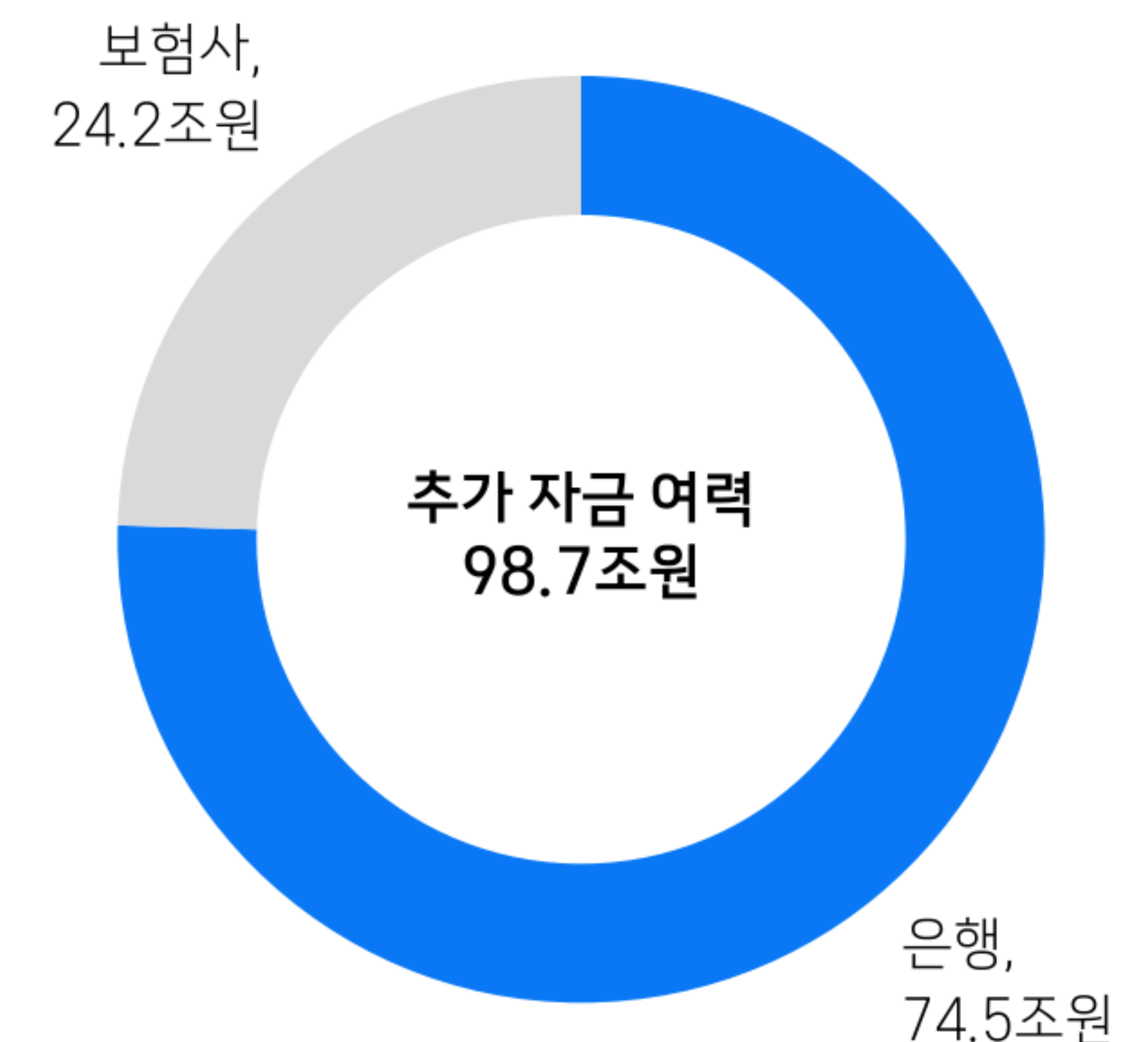
참고: 국민성장펀드, 자체 투자, 기업대출 = 생산적 금융,
2025년말 발표 기준
자료: 각 금융지주

VC 펀드 출자 관련 위험 가중치, 위험 계수 완화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 규제 개편으로 추가 투자 여력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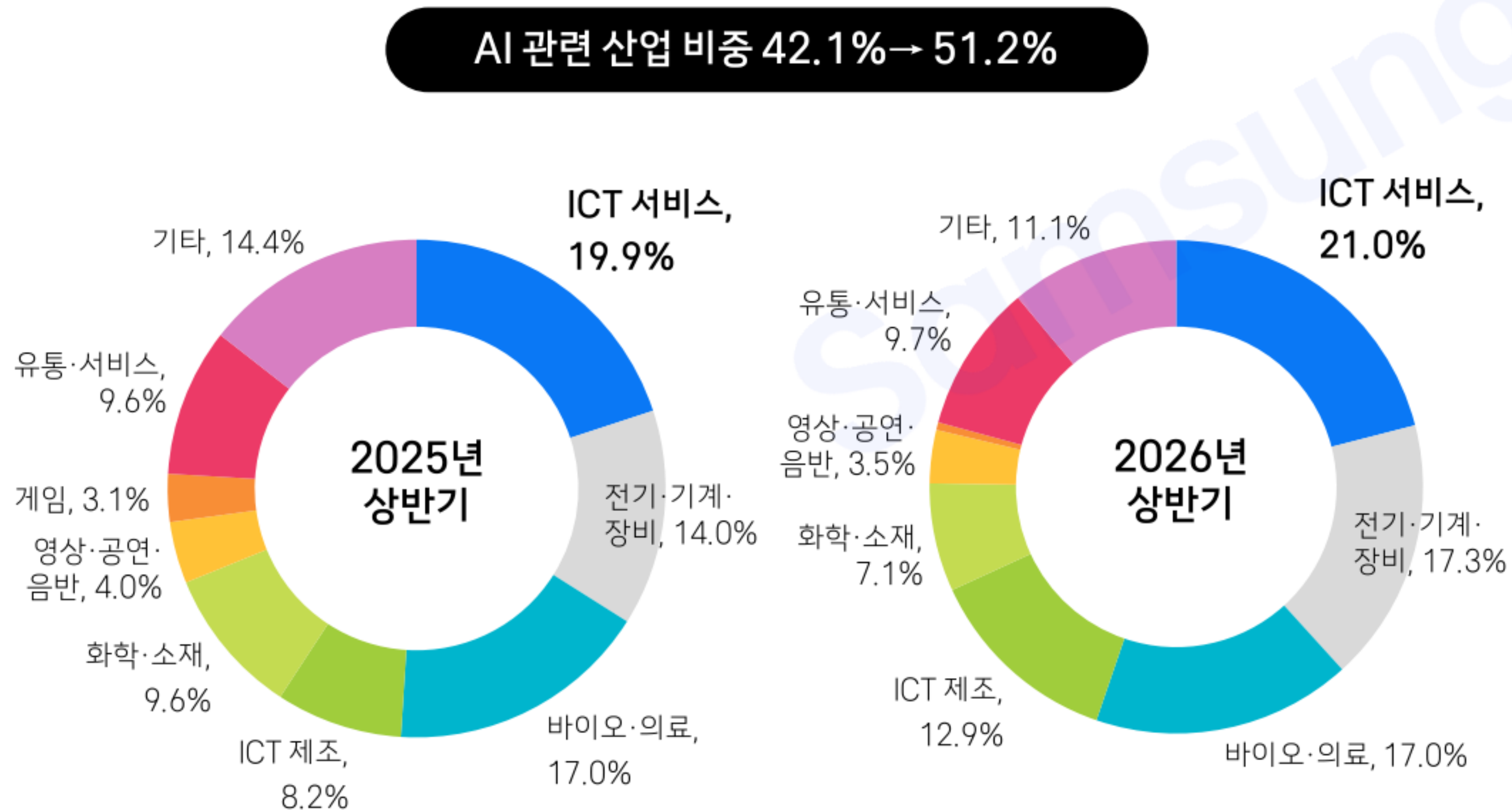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2) 투자 시장

AI 주도이나 선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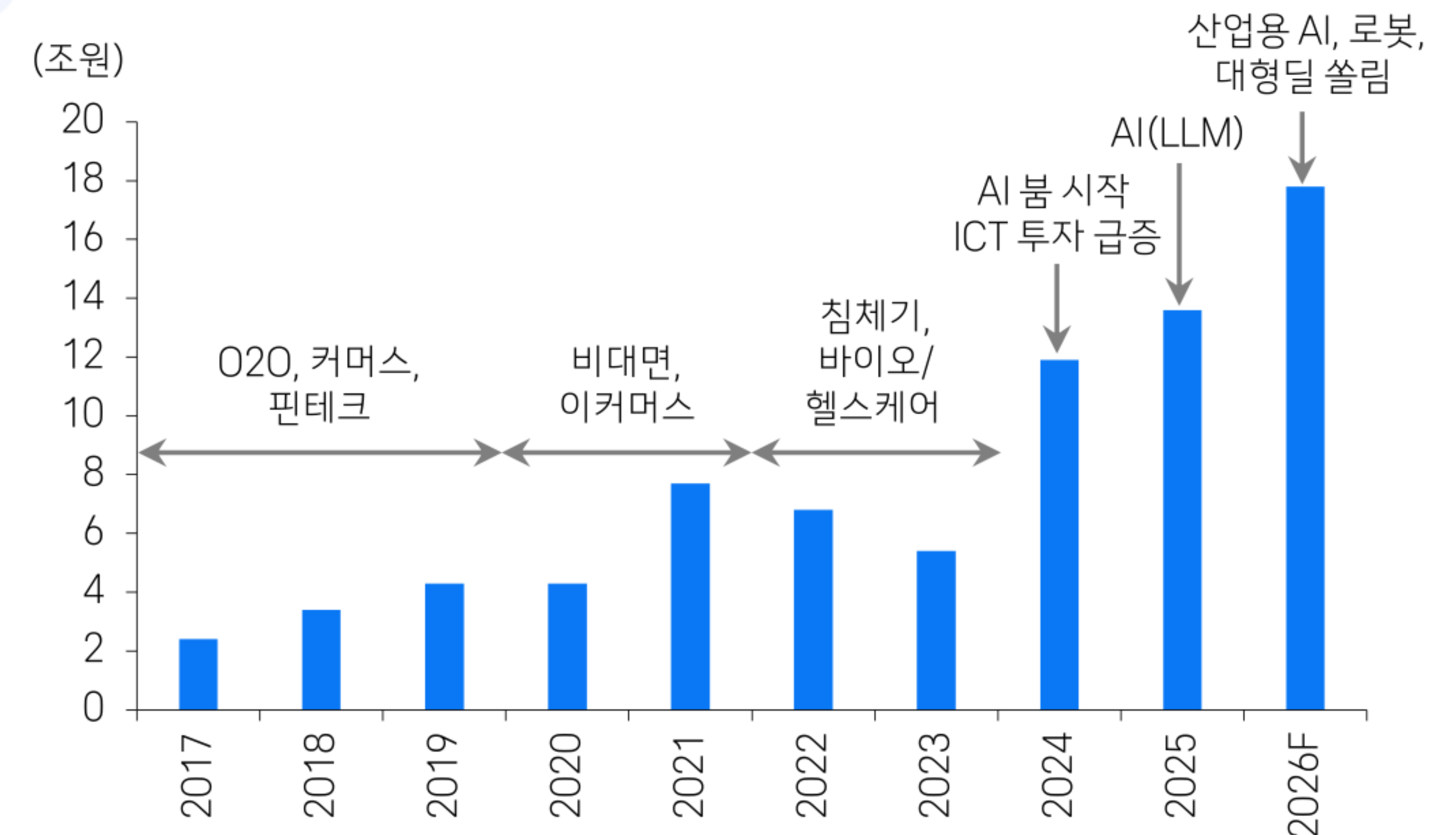
- 상반기 신규 투자 규모는 8.9조원으로 역대 최대, AI 관련 업종인 ICT 제조/전기기계장비/ICT 서비스가 총투자의 51.2%로 증가
- 국민성장펀드와 연기금 시즌이 동시에 겹치는 2026년 하반기, 정책 자금 주도의 투자 확대가 AI와 반도체 산업 쏠림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
- VC 투자는 트렌드를 보여줌. 2019년까지는 O2O/ 핀테크,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이커머스가 주도
- 2024년부터 AI 붐이 시작돼 초기에는 LLM 위주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점차 섹터 확산 및 투자 대상 선별에 나서기 시작
- 2026년 들어 산업용 AI 서비스, 로봇 등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에 관심 증가

VC 투자액 섹터별 구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 투자액 추이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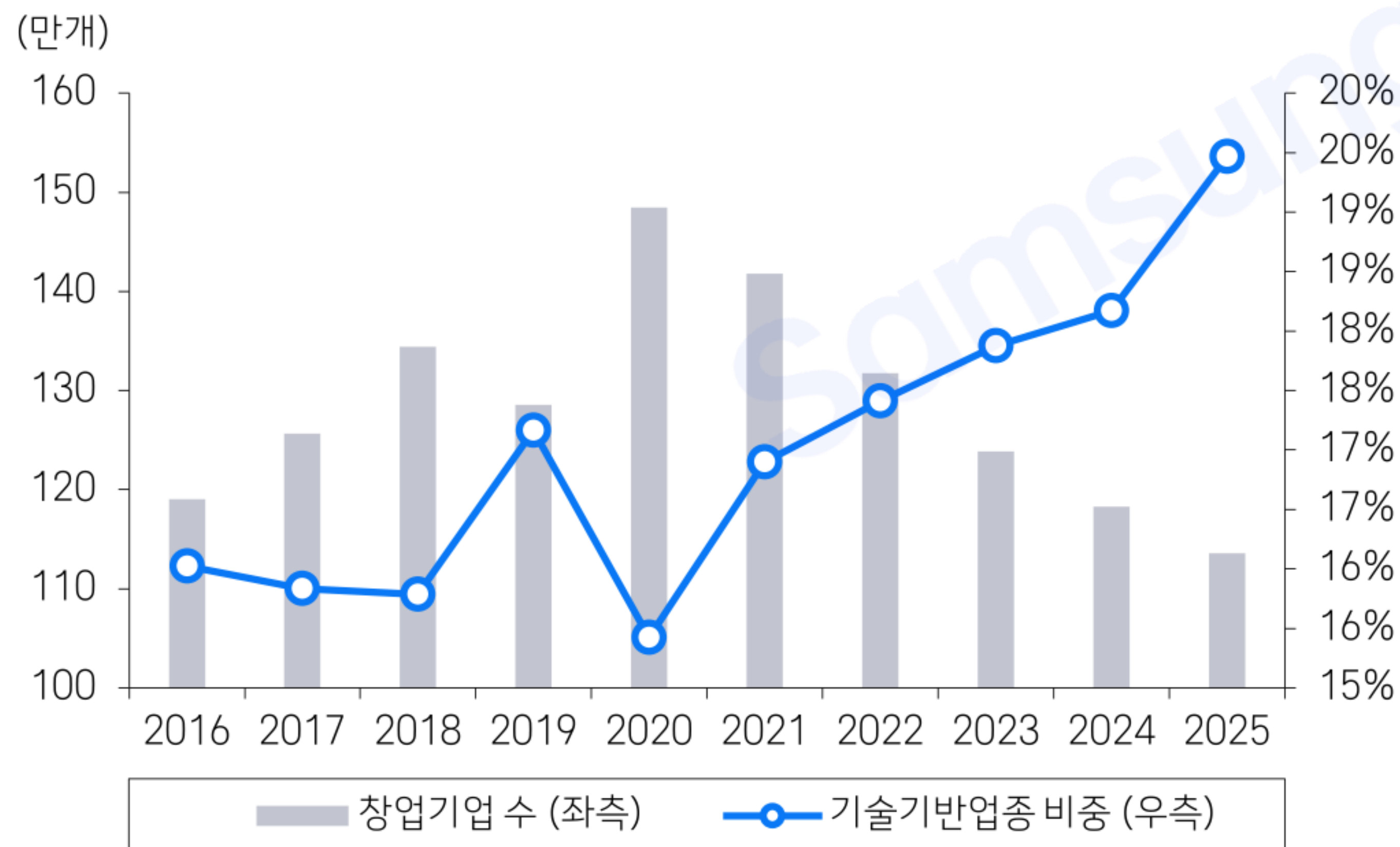
참고: 2026년은 상반기 수치를 연 환산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 e나라지표, KDI

2) 투자 시장

투자 대상 범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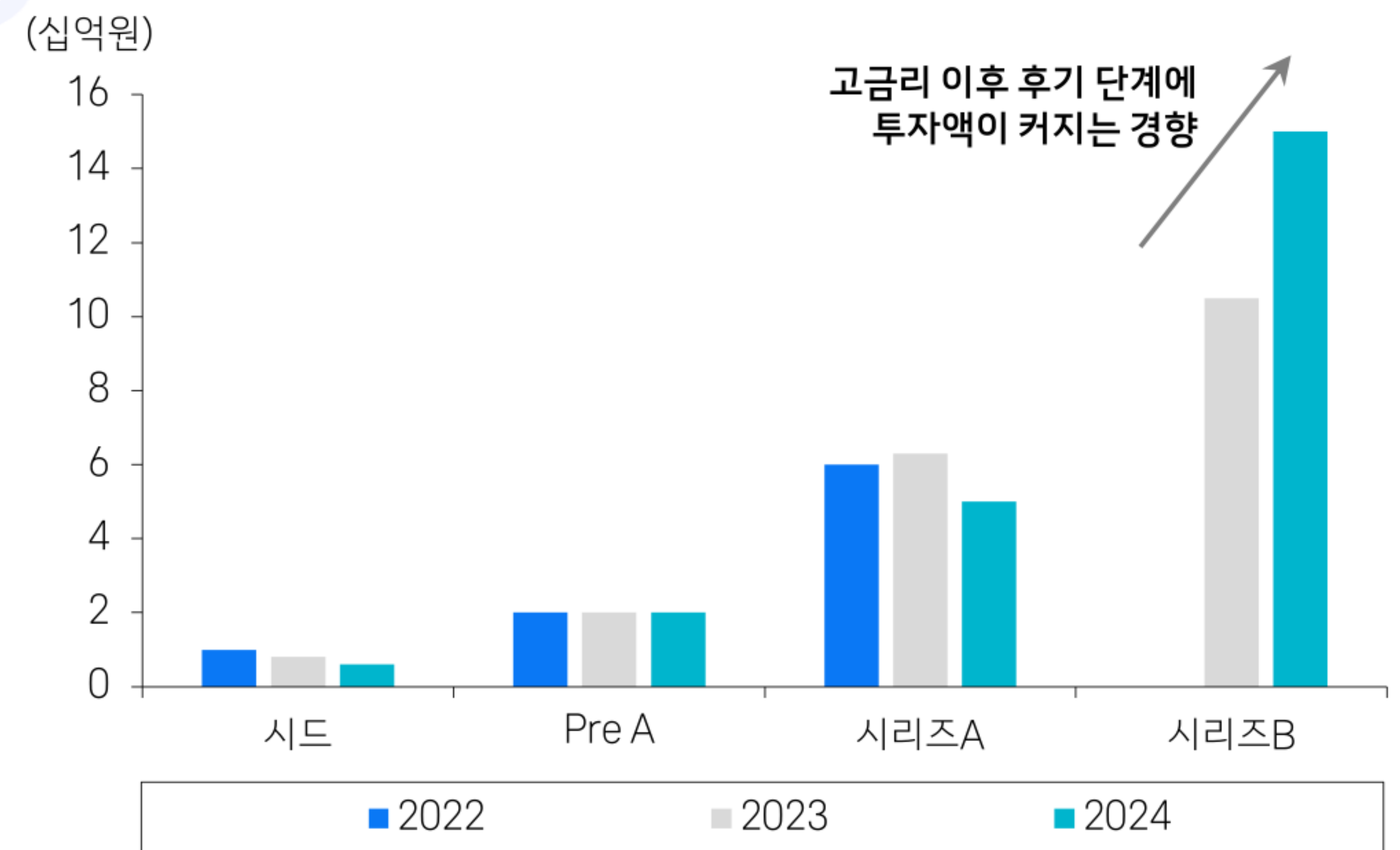
-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라는 산업 기반의 특성으로 올 들어 VC 투자는 산업용 AI 서비스(애플리케이션)으로 집중되는 추세
- 산업용 AI에 자금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VC를 주도하는 자금이 정책 자금이기 때문
 - 일례로 지자체 펀드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거점 산업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관련된 AI 서비스에 투자를 집행
- 고금리로 침체기를 겪은 이후 투자 대상의 선별이 엄격해짐. 시드-시리즈A 등 초기 단계에 투자가 집중되었던 2020년과 달리 후기 단계에 투자가 집중
- 이에 따라 투자 자금은 넘치나, 국내 스타트업 창업 기업 수는 감소세. 후기 단계, 대형 딜 등 Low risk-low return으로 VC 투자가 전환 중이기 때문

창업 기업 수 감소, 업종은 쏠림



참고: 기술기반창업 기업은 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제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증권

투자 단계별 투자액 중앙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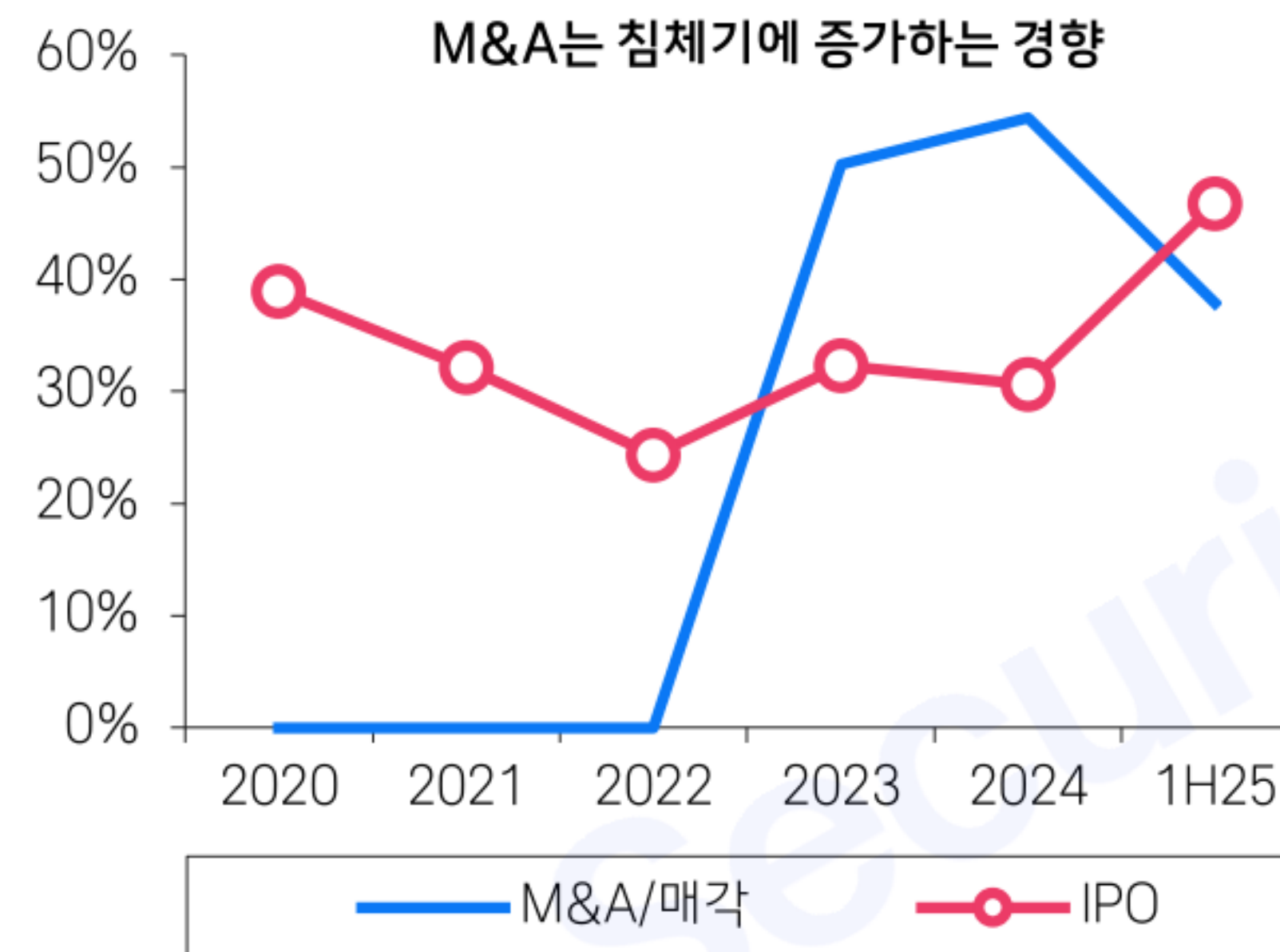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3) 회수 시장

엑시트는 M&A 중심

- 회수 시장은 2021년 정점 후 급격히 위축
- 2025년 회수액이 4년 만에 6조원대를 회복했으나, 회수의 질을 나타내는 회수 배수(회수액/투자원금)는 1.8배로 2021년 2.9배 대비 크게 하락
- 장기간 국내 회수 시장은 M&A와 매각이 IPO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옴
- 한국의 VC시장은 미국과 같은 메가딜보다 중소딜 중심. 1) 정책 금융 중심으로 성장한 데다, 2) 대기업 위주 산업 구조의 특성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엑시트 사례가 많기 때문

VC의 엑시트 유형 중 M&A와 IPO 비중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VC 엑시트 실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증권

VC 업계 내 M&A를 통한 회수 사례

피인수기업	주요 투자자	인수 기업	시기	인수액 (평가액)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골드만삭스PIA, 힐하우스캐피탈, 세콰이어캐피탈,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등	딜리버리히어로	2019~2020	기업 가치 4.8조원, 지분 87% 인수
더블유컨셉코리아 (W컨셉)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신세계그룹 (SSG닷컴)	2021.5	2,650억원 (지분 100%)
비바웨이브 (색조 브랜드 '힌스')	VC 다수(엔젤/초기 투자 포함)	LG생활건강	2023	비공개
넥스트썸 (영상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 지분투자 (19.98%)	CJ ENM 계열 스튜디오드래곤	2025.4	160억원 (잔여지분 인수, 자회사 편입)
인터파크트리플/인터파크커머스	국내외 VC/PE	야놀자	2023	2,500억원대

자료: 각사, 삼성증권

3) 회수 시장

고밸류에이션은 엑시트의 병목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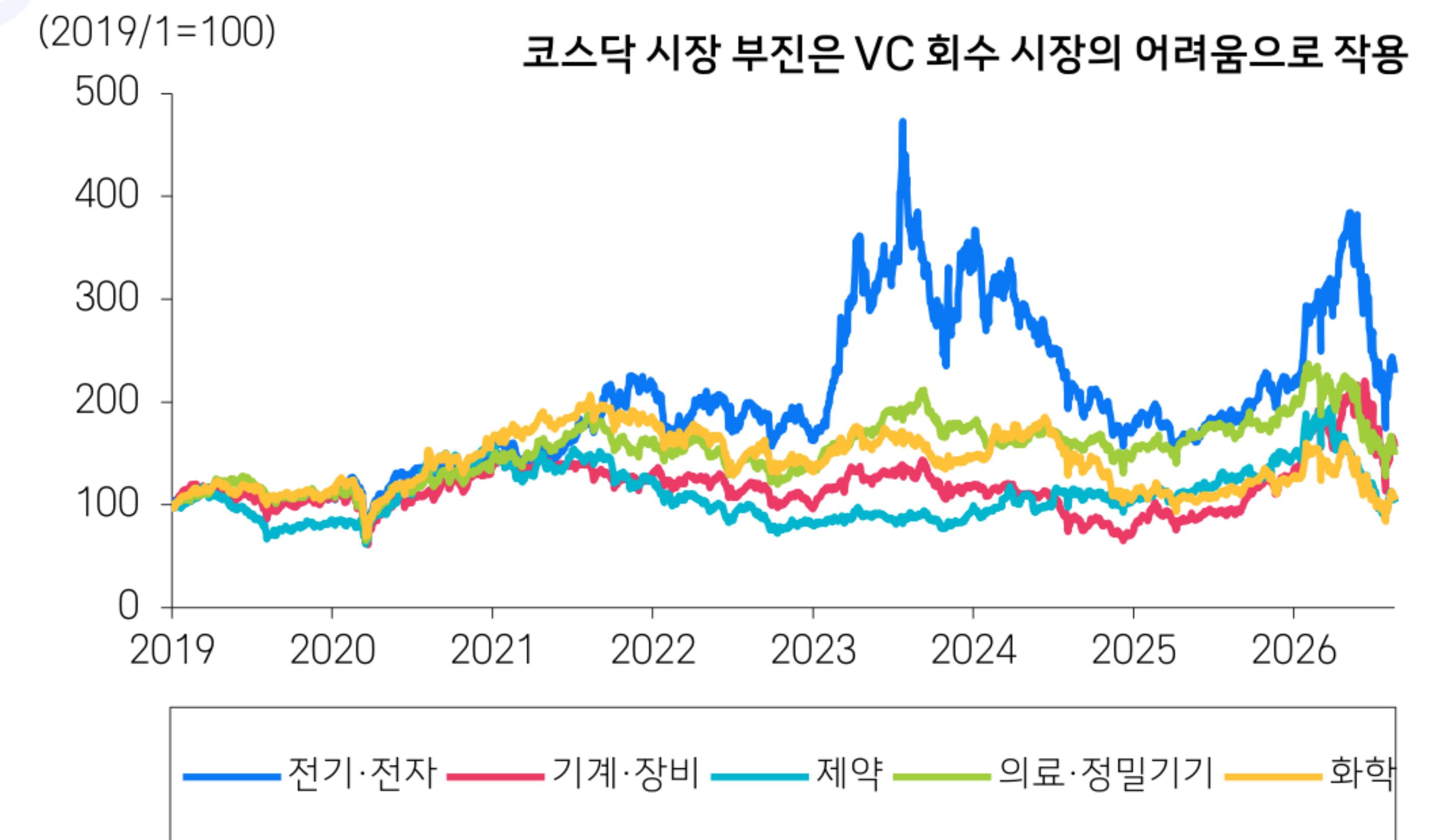
- 빨라진 투자 확대 속도를 코스닥과 같은 회수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며 회수에 병목
- 코로나19 당시 광범위한 VC의 투자 열기 이후, 밸류에이션 급락의 학습 효과. 2023년 이후 글로벌 VC업계에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해소된 상태
- 국내 역시 시리즈 A 이하 단계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지만 최근 시리즈B 이후 단계부터 밸류에이션이 급등하는 양극화 기조
- 후기 단계일수록 주식시장과 밸류에이션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IPO의 난제로 작용. 한동안 업계는 합리적 엑시트 방식으로 M&A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음
- 2027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비롯, 주요 LP들의 VC 자금 투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밸류에이션은 다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

글로벌 VC의 다운라운드(밸류에이션 하향) 비중



참고: 건수 기준
자료: Preqin, 삼성증권

코스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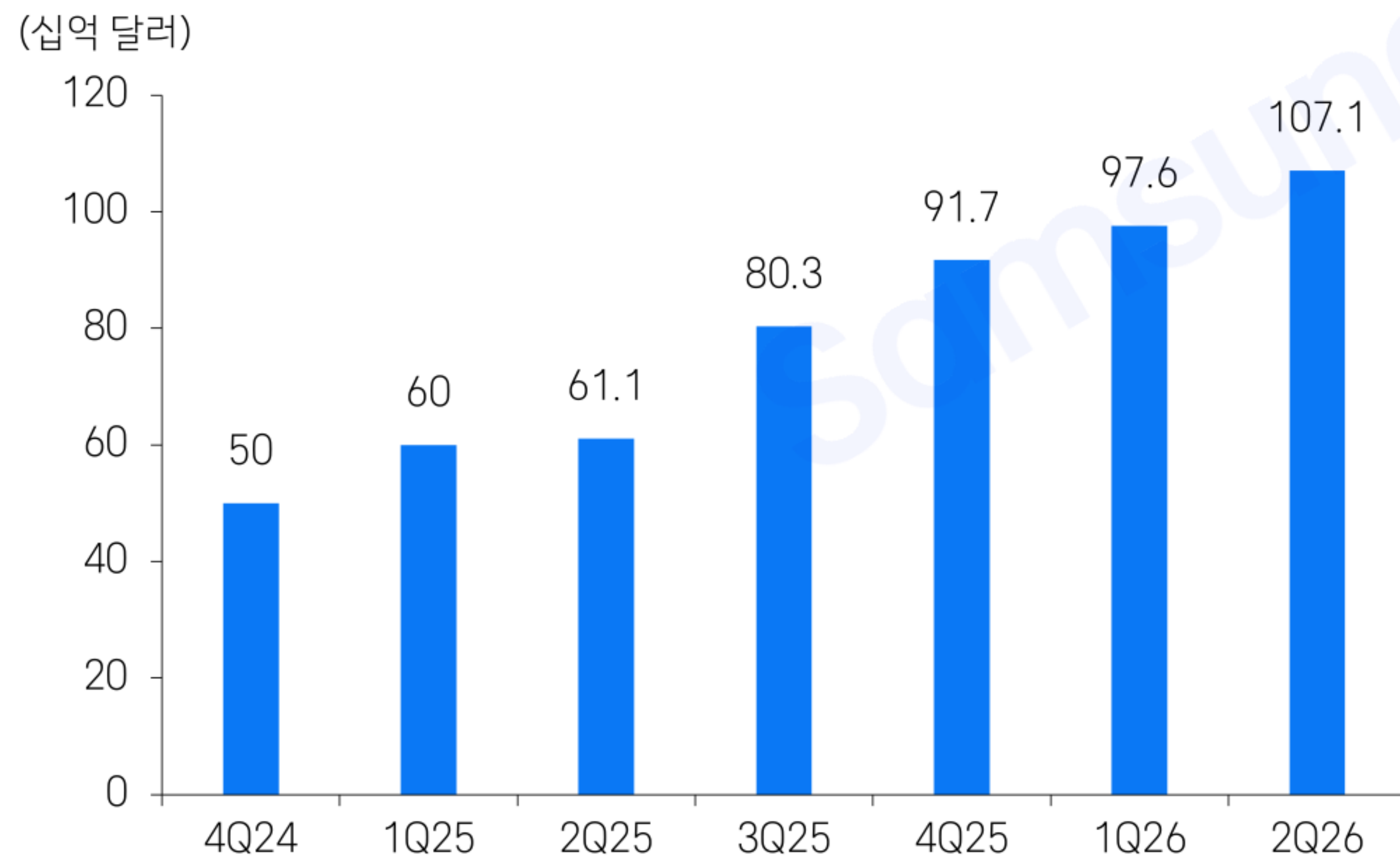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삼성증권

3) 회수 시장

세컨더리 시장 비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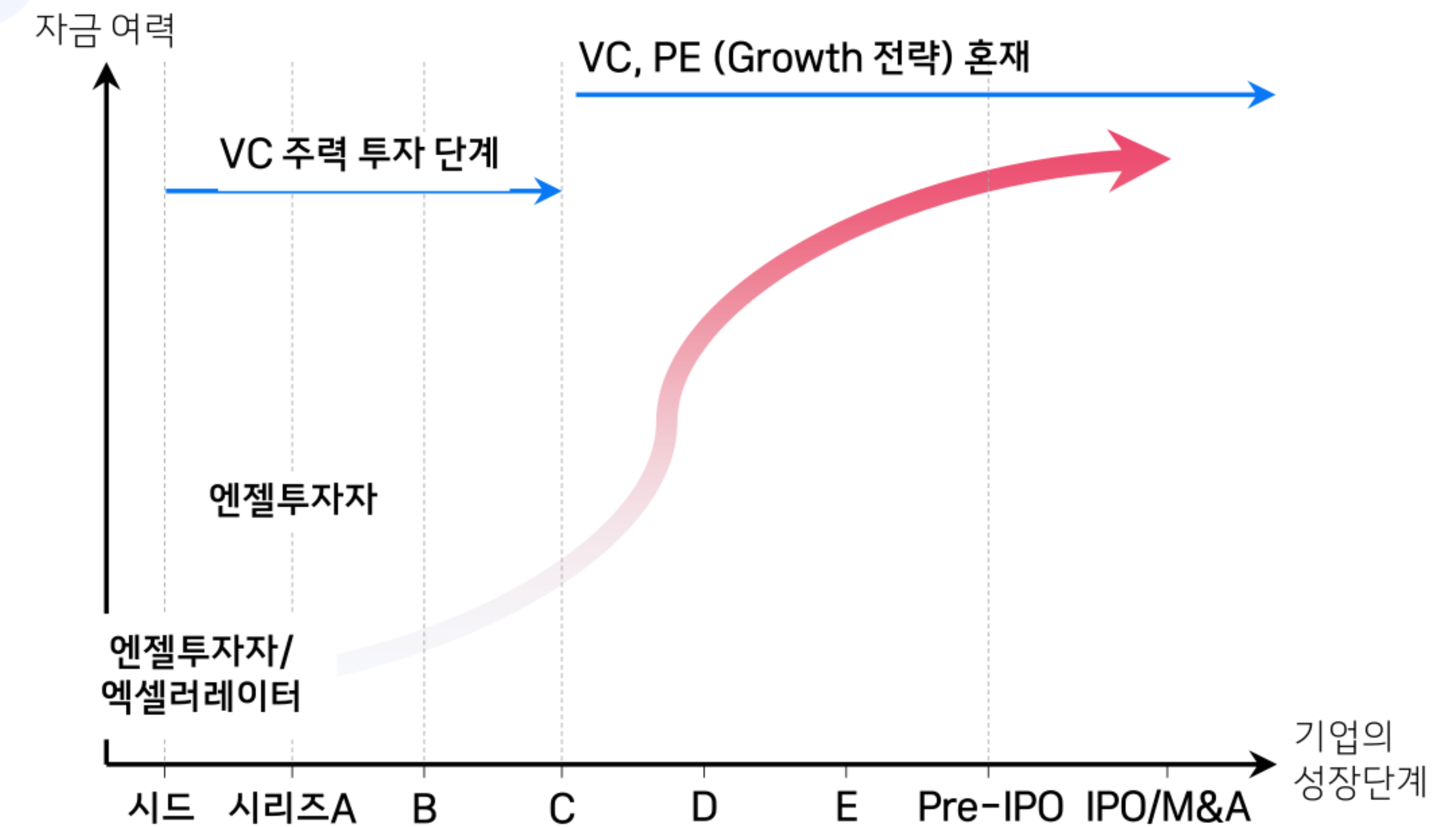
- 한국에 대형 VC딜이 부족한 이유는 펀드 만기가 최대 7년으로 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 전,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반면 미국은 세컨더리 시장의 발달로 Continuation vehicle을 통해 각 성장 단계별로 이에 부합하는 투자자들이 새로이 유입
- 각 단계마다 니즈에 부합하는 펀드들이 투자하는 형태이므로 다양한 투자자와 자금 소스 확장이 가능함
- 국내는 모태 펀드(정부가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VC에 출자하는 펀드) 중심의 특성으로 세컨더리 도입이 미비
 - 일반적으로 VC 투자 8년 차부터 성장의 커브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초장기 펀드 설정도 준비하는 움직임
- 기업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기업 성장에 장기간 동참하고자 하는 VC 수요가 늘고 있음을 고려 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필요

미국 VC 세컨더리 거래액



자료: Pitchbook, 삼성증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니즈에 맞는 투자자 유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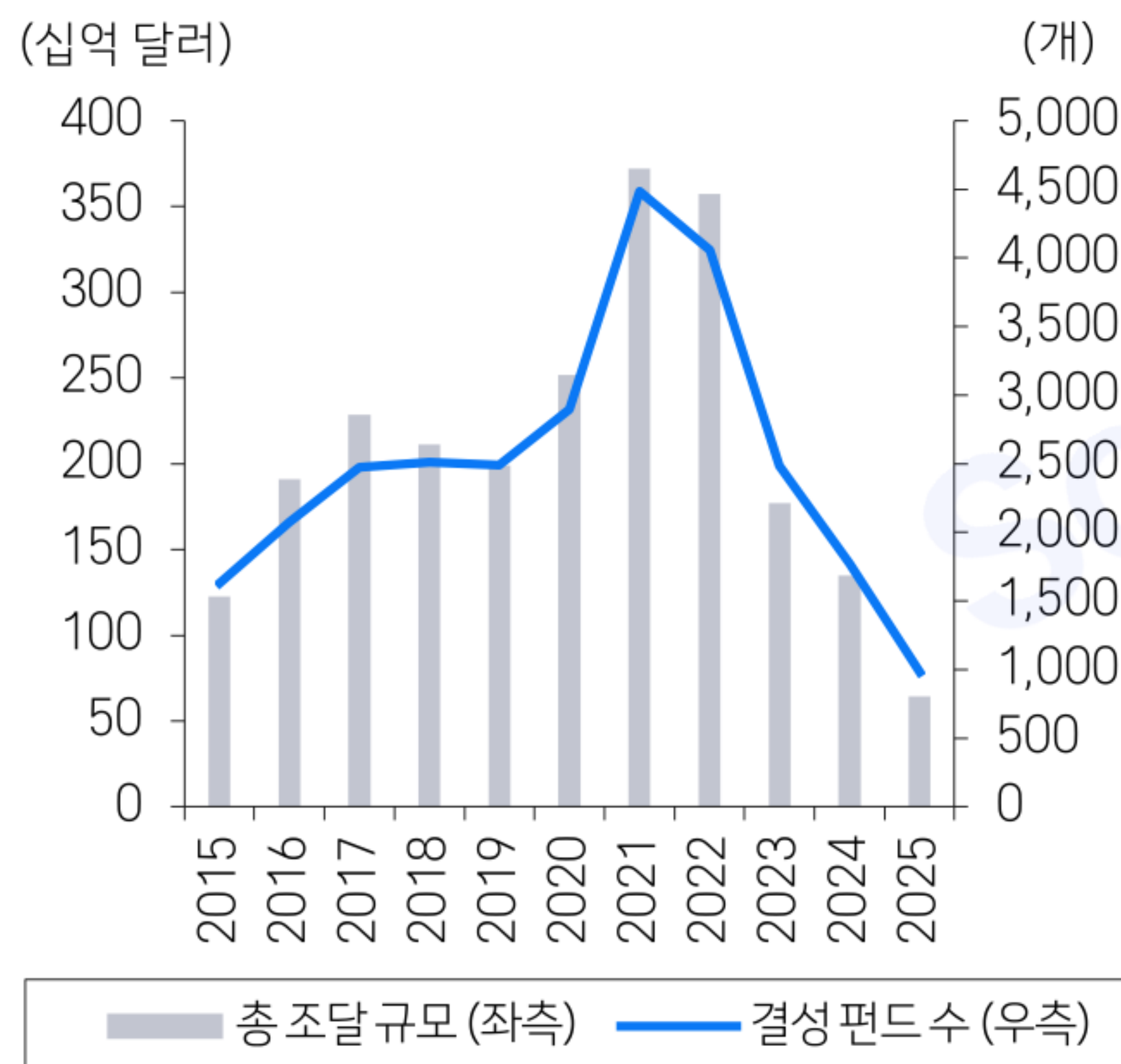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투자 시장: 호황, 그러나 극심한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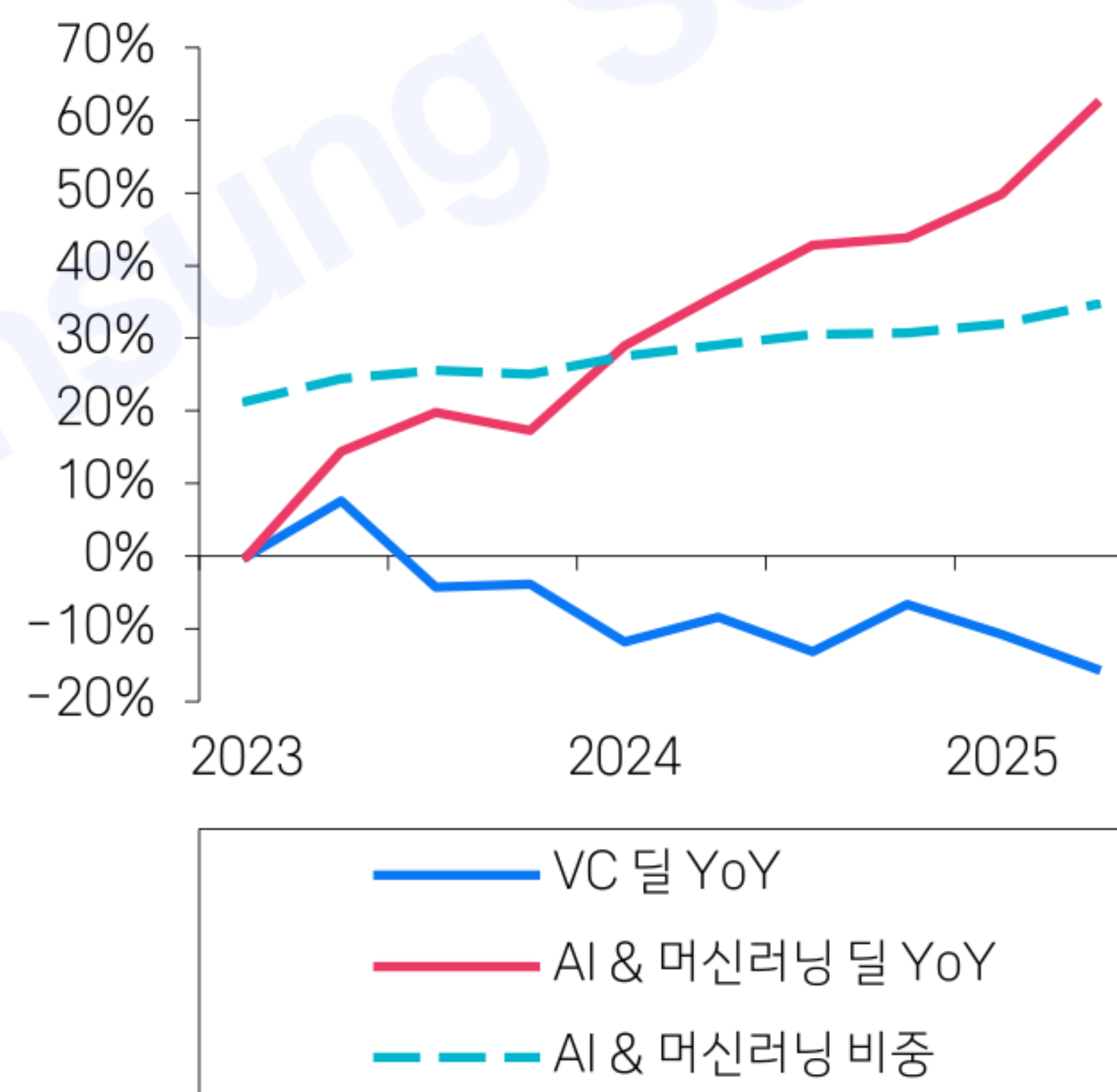
- 글로벌 VC 자금 조달 시장은 여전히 침체인 반면 VC 투자는 사상 최고치. 주로 미국 기반의 LLM 기업 위주의 투자
-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성장 및 후기단계 라운드를 선호, 이들이 투자액의 95%를 차지하며 양극화 심화
- 수익화 검토가 엄격해지며 시드 전 투자는 축소세. 이는 전방위적인 섹터에 초기 단계 위주로 투자되었던 2020~2021년과 극명한 차이
- Open AI, Anthropic과 같은 극소수 AI 기업의 밸류에이션 폭등 영향으로 초대형 기업은 일반적인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패턴을 벗어난 상황
-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액은 5,100억 달러로 2025년 연간 수치인 4,400억 달러를 이미 초과. 이 중 70% 이상이 AI에 쏟아져 있음

글로벌 VC 자금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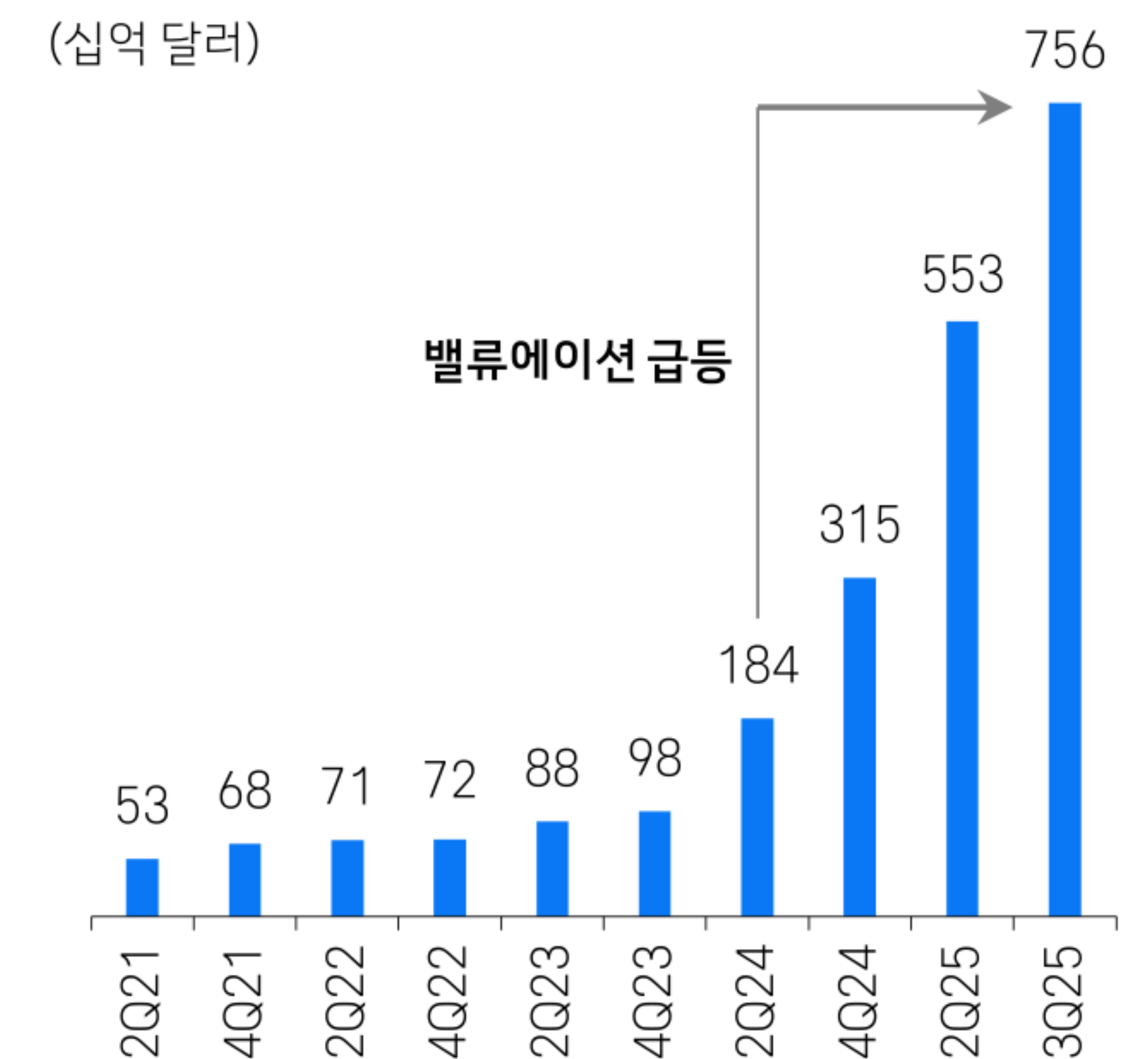
참고: 2025년은 3분기 말 기준
자료: Preqin, 삼성증권

글로벌 VC 딜 증가율과 AI/머신러닝 딜 비중



자료: Preqin, 삼성증권

10대 비상장 순수 AI 스타트업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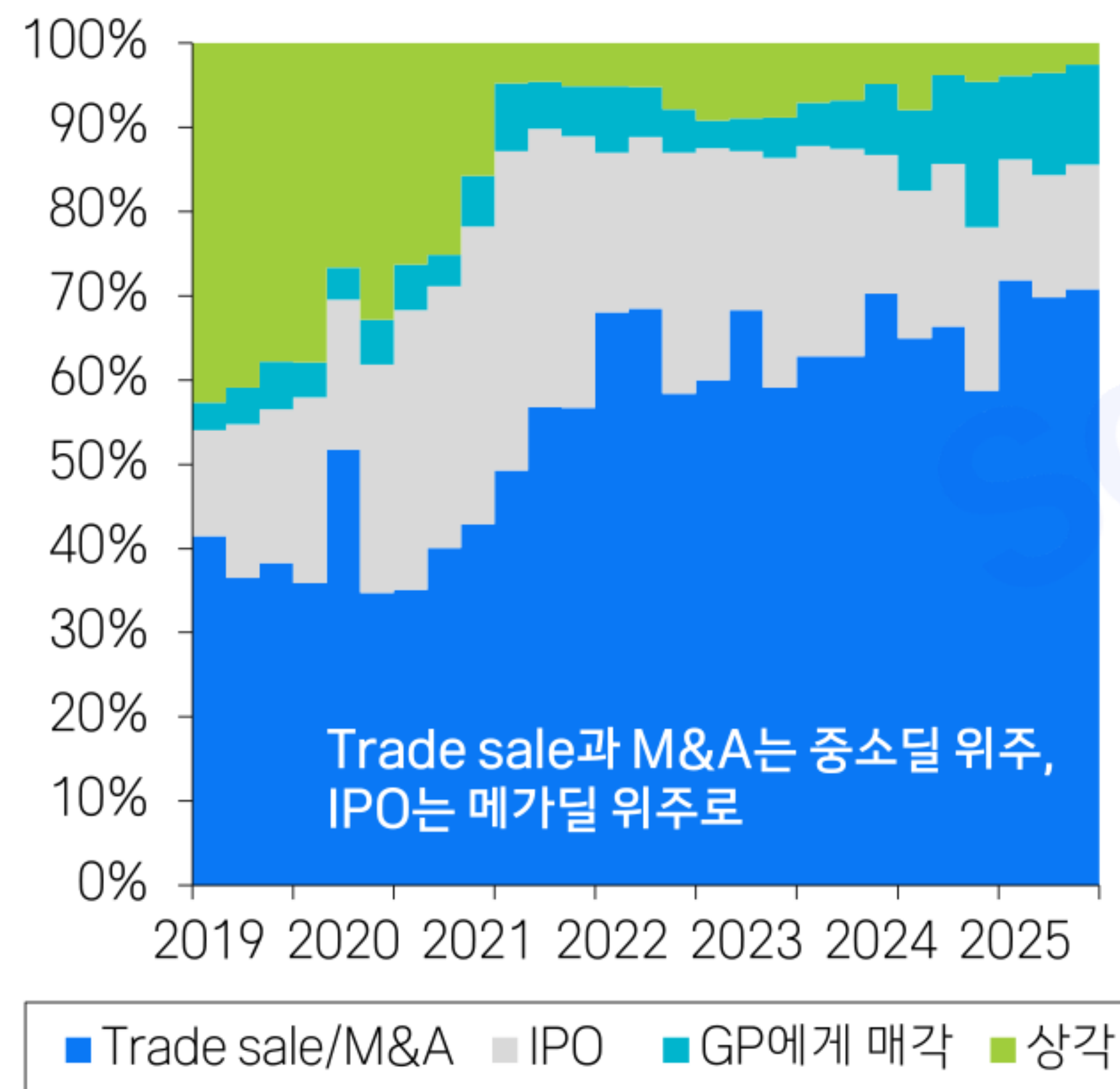
참고: Open AI, Anthropic, Databricks, x, AI, Figure AI, Thinking Machines Lab, Safe Superintelligence, Anysphere 등의 투자 후 기업 가치 합산액

참고: Pitchbook

엑시트: 소수 딜이 주도한 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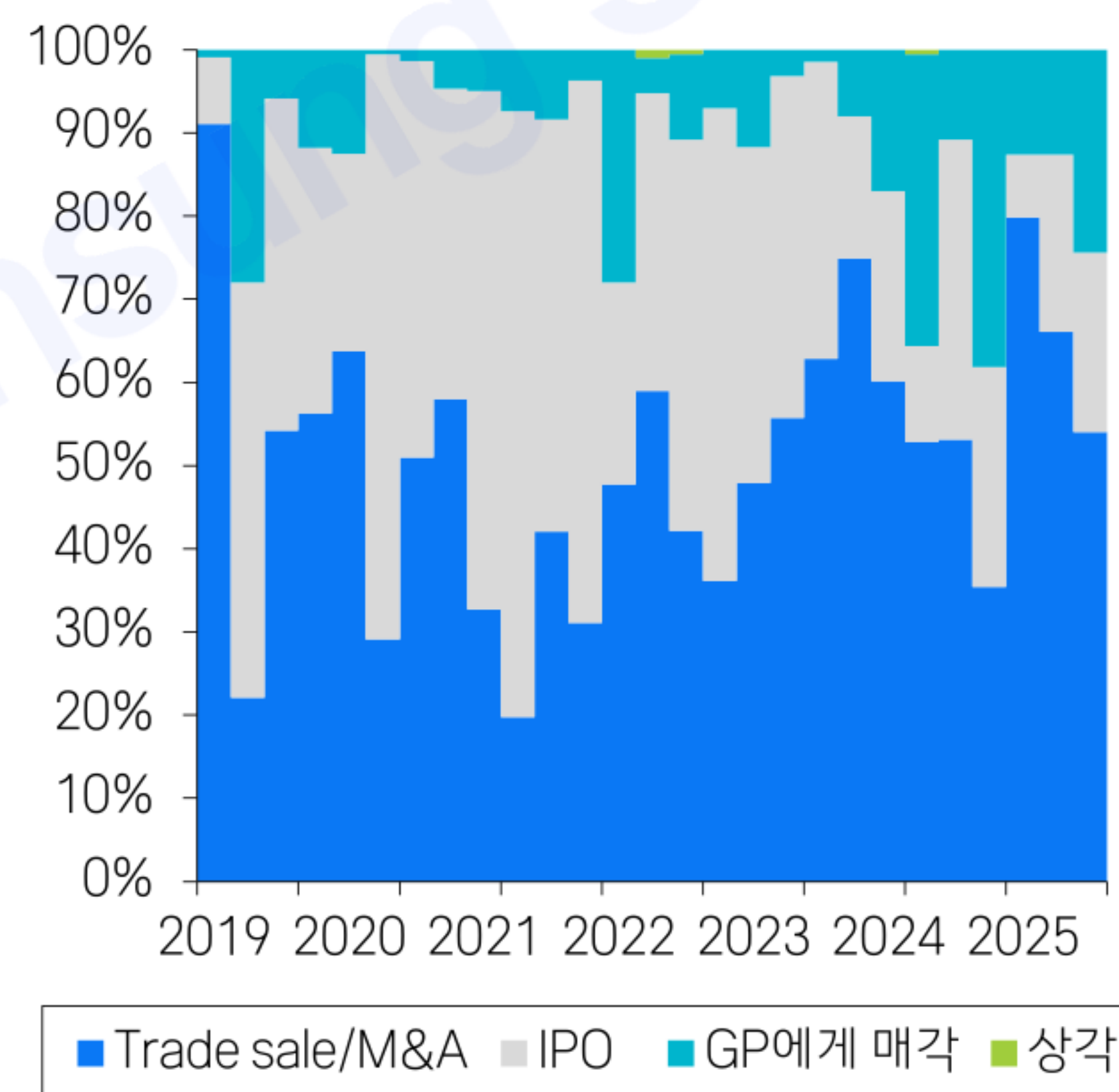
- 엑시트 가치 역시 20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2배 증가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 소수 AI딜이 주도했으며 비 AI 섹터는 침체
- 대형 M&A 비중은 건수 기준 증가세이나 IPO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건수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된 결과
- 금액 기준으로는 IPO 비중이 재상승하고 있는데 메가딜 위주로만 IPO가 재개되고 있기 때문
- 글로벌 VC 펀드의 성과 편차 확대. 대형 딜을 편입한 펀드는 top quartile 성과에 속하며 2021년 이후 빈티지부터 IRR 반등
- 코로나19 시기의 무차별한 밸류에이션 상승의 반작용을 겪은 뒤 초기 단계보다 후기 단계와 대형딜에 집중 현상이 강화될 전망

글로벌 VC 엑시트 유형별 비중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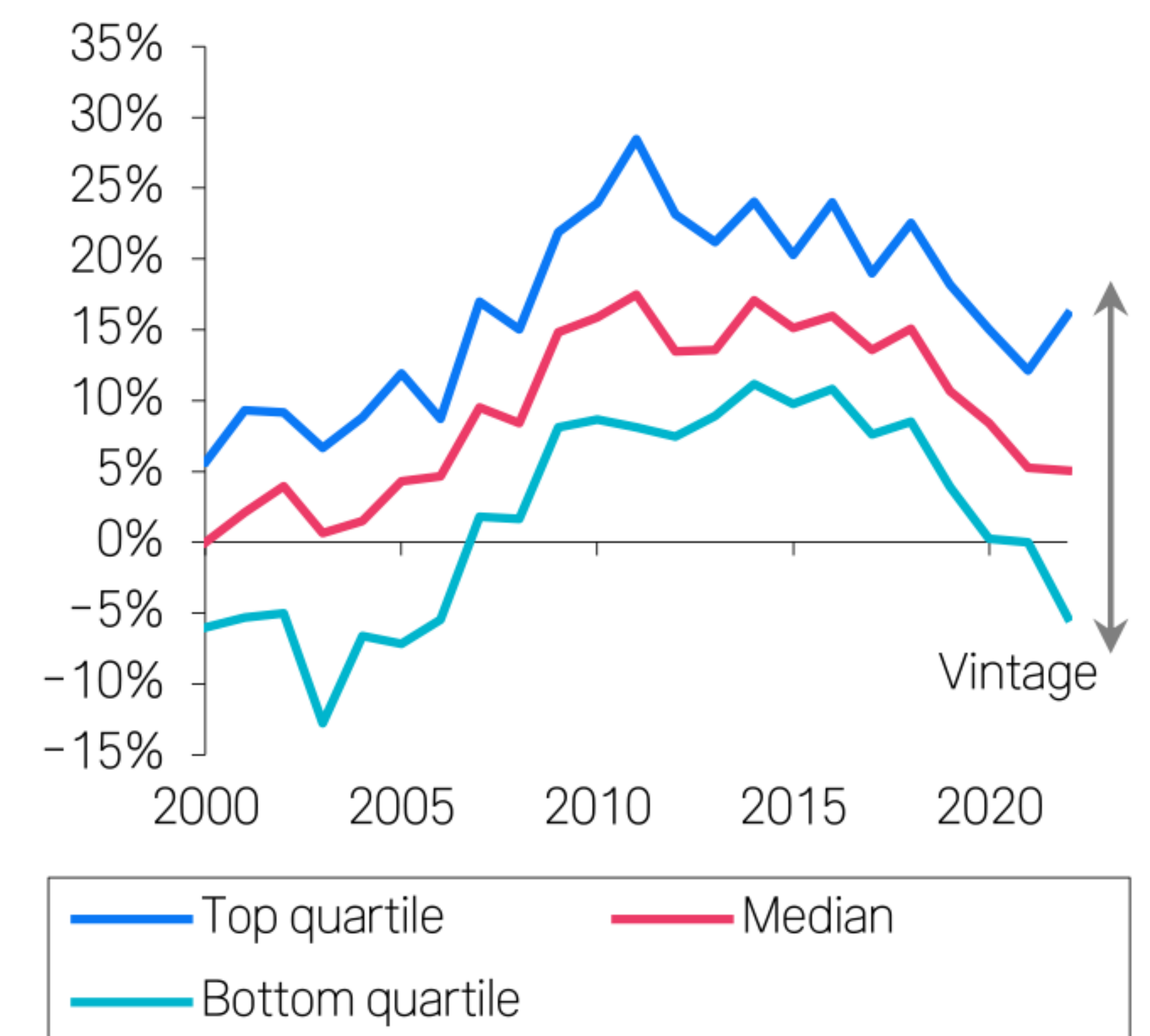
참고: 2025년은 3분기 말 기준
자료: Preqin, 삼성증권

글로벌 VC 엑시트 유형별 비중 (금액 기준)



참고: 2025년은 3분기 말 기준
자료: Preqin, 삼성증권

성과별 IRR



자료: Preqin, 삼성증권

PART 02

Next chapter, Infra에서 Application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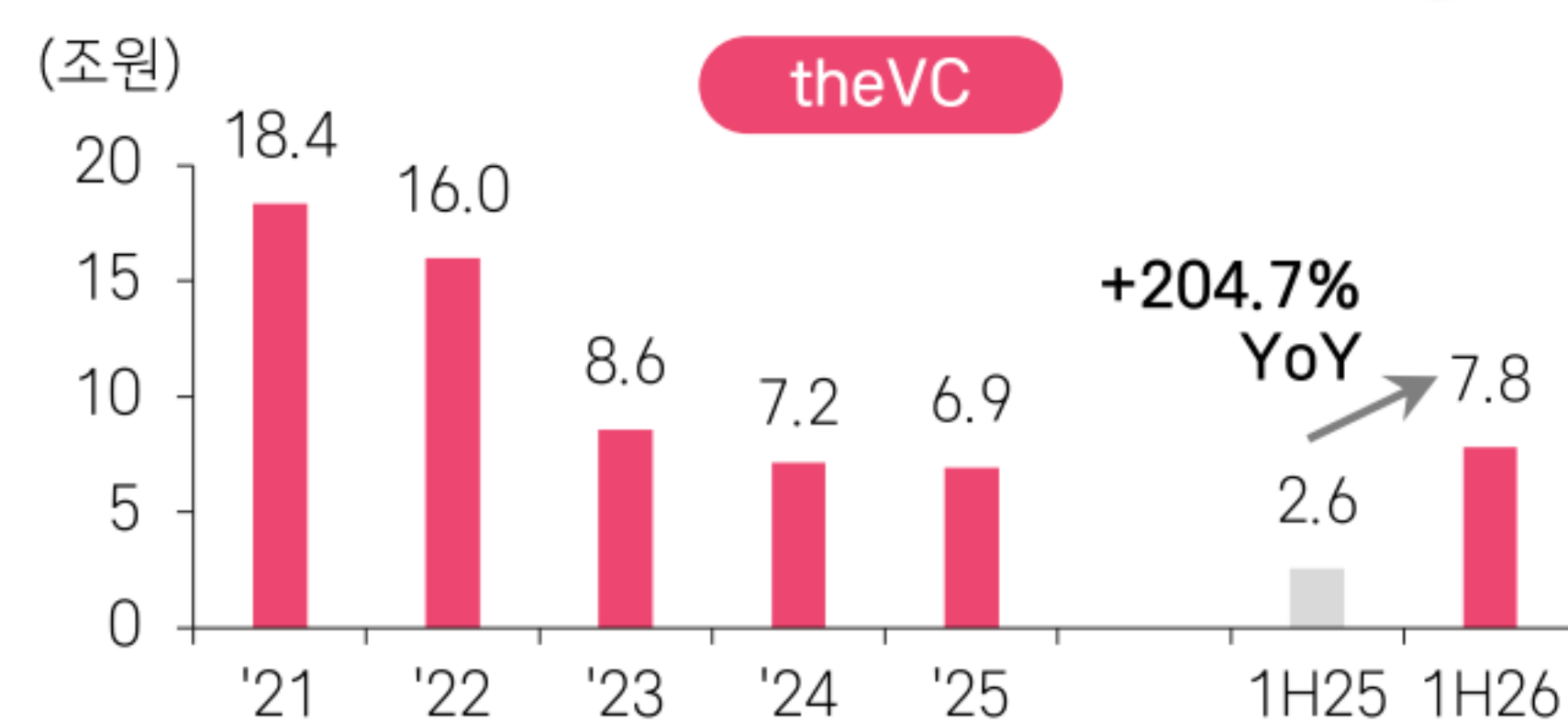
Samsung Securities

1) Review - NPU, 파운데이션 모델

국내도 AI 쏠림은 동일 - NPU, 파운데이션 모델 위주

- 26년 상반기 국내 벤처 투자 금액은 약 8.9조원(중기부)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54% 증가하며 시장 회복세 본격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생산적 금융 등 정책 드라이브와, 연기금/공제회 등의 최대 규모 출자로 메가딜 증가. 특히 AI 인프라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
- 국내 AI 투자는 NPU (퓨리오사, 리벨리온, 엑시나, 포인투테크놀로지 등), 파운데이션 모델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중심의 인프라 레이어 집중
- 정부의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육성 정책과 및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은 국내 AI 투자가 NPU와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으로 집중되는 배경으로 작용
- 정부는 2030년까지 유니콘을 50개로 늘린다는 목표 보유(작년 말 27개). 시장의 관심은 차세대 유니콘이 어떤 영역에서 등장할지에 집중

국내 상반기 비상장 투자 금액 - 중기부, theVC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theVC, 삼성증권

26년 한국 펀딩 라운드 TOP 10 - AI가 대부분

기업명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분야
퓨리오사AI	800	5월 28일	AI 반도체
리벨리온	640	3월 31일	AI 반도체
업스테이지	560	5월 4일	LLM
업스테이지	180	4월 15일	LLM
홀리데이로보틱스	155	7월 13일	휴머노이드
엑시나	150	4월 15일	AI 반도체
트웰브랩스	150	7월 2일	영상 AI
스마트스코어	110	2월 12일	골프 플랫폼
포인투테크놀로지	100	4월 23일	데이터 전송
더블랙레이블	100	5월 26일	엔터사

참고: 두나무 구조인수 제외 / X월 X일 기준
 자료: 스타트업레이피, 삼성증권

1H26 분야별 AI·로보틱스 투자 비중

분야	전체 투자금 (십억원)	AI/로봇 투자금 (십억원, 비중)
제조/화학	344.4	322.9 (93.8%)
광고 마케팅	31.2	23.7 (76.0%)
엔터프라이즈/보안	510.8	387.3 (75.8%)
반도체/디스플레이	1,185.3	750.1 (63.3%)
음식/외식	49.3	27.5 (55.8%)
농수산/축산	13.8	7.0 (50.7%)
바이오/헬스케어	890.1	284.6 (32.0%)
모빌리티	288.8	41.3 (14.3%)
여행/여가	122.8	10.0 (8.1%)
콘텐츠	62.1	2.2 (3.5%)

자료: theVC, 삼성증권

1) Review - NPU, 파운데이션 모델

Review - AI 추론 시대의 핵심 인프라, N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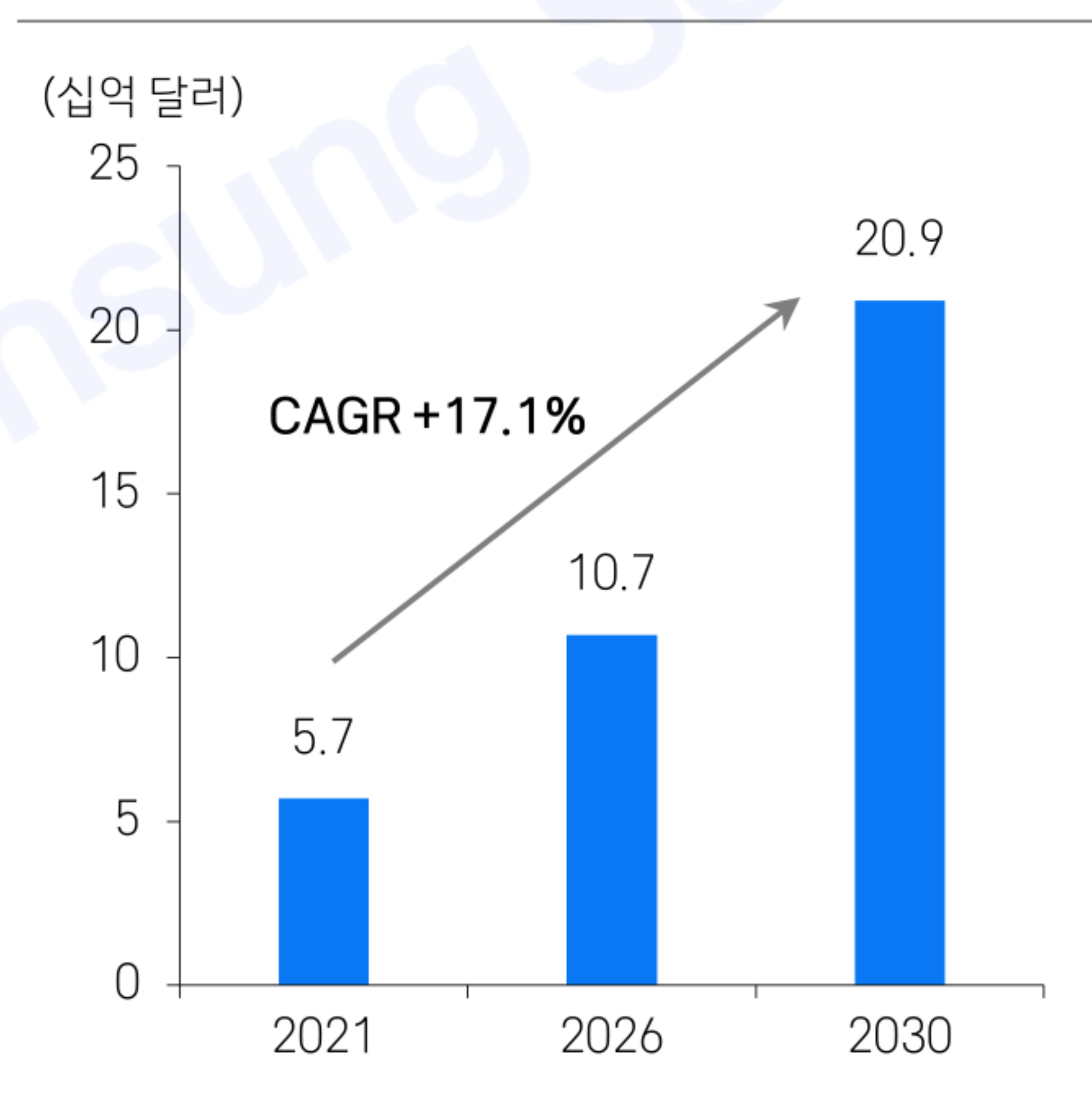
- NPU(Neural Processing Units)는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딥러닝 추론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
- 기존 GPU는 대규모 AI 학습 능력과 범용 컴퓨팅이 강점이지만, 높은 가격과 전력 소모로 인해 운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중
-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 CUDA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가 지배. 높은 GPU 가격 및 공급 제약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확대
- AI 패러다임이 학습(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으로 이동하면서,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NPU가 대안으로 부상
- NPU는 주요 사용 목적에 따라 1) 데이터센터용 NPU 2) 온디바이스, 엣지 NPU로 구분 가능

CPU, GPU vs NPU

분야	CPU	GPU	NPU
주요 역할	다양한 소프트웨어 · OS 처리	대량의 병렬 연산 수행	AI 추론 효율 극대화
강점	범용성, 순차 처리	대규모, 병렬 처리	저전력, 고효율 추론
활용 예시	OS, 앱 실행	그래픽 렌더링, 영상 처리, AI 학습	실시간 추론, 온디바이스 AI

자료: LX세미콘, 삼성증권

NPU 시장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삼성증권

국민성장펀드 - NPU 직접 투자

분야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기업 가치	3.4조원 (Post)	3조원 (목표)
프리IPO 증자규모	6,400억원 (완료)	8,000억원 (추진중)
재원 조달	국민성장펀드 2,500억원	국민성장펀드 3,700억원
	산업은행 5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
	기타 3,400억원	기타 4,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NPU - 데이터센터 / 온디바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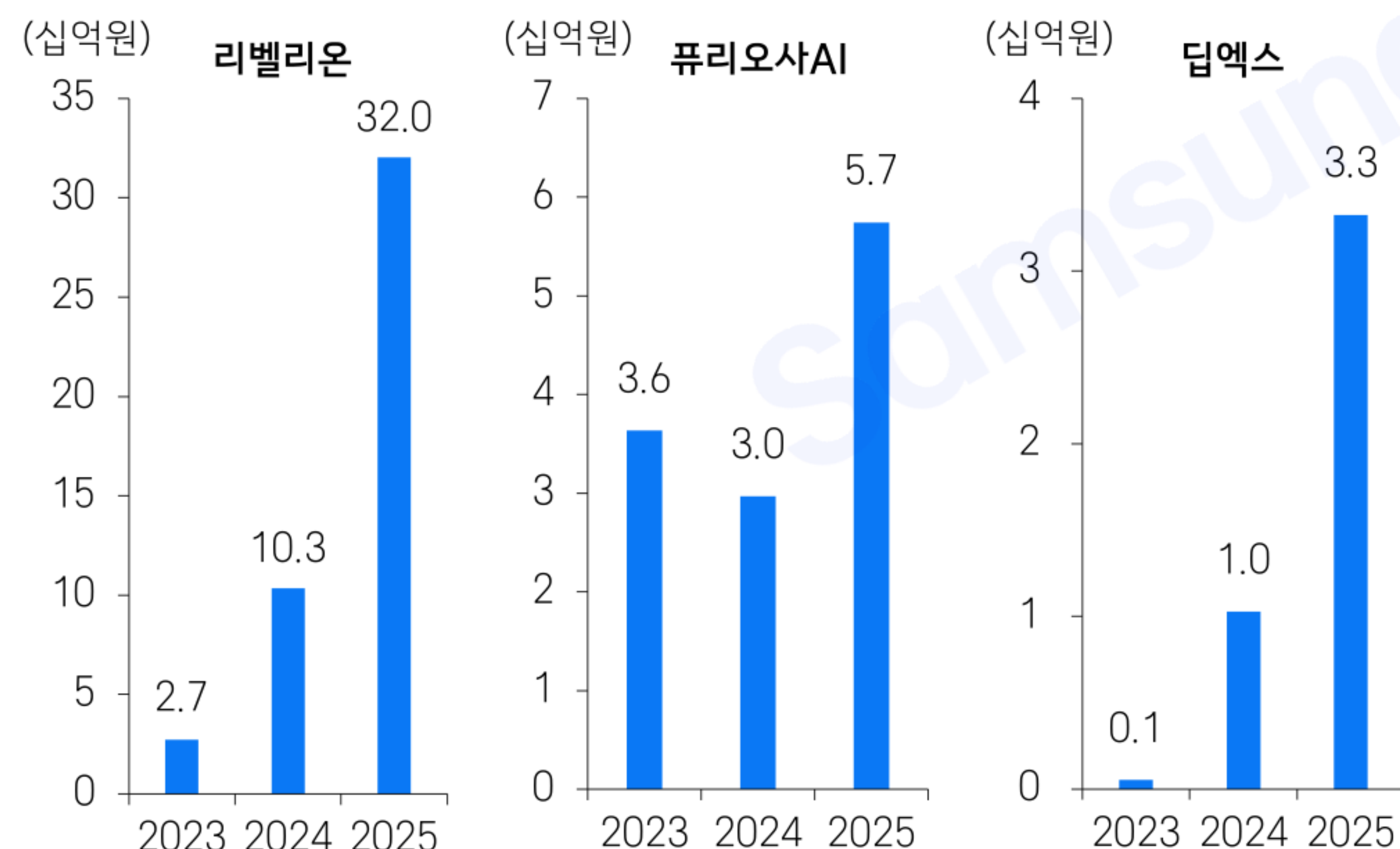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특화 NPU

- 데이터센터용 NPU는 병목 해결을 위해 HBM이 필수적. 국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해 시너지 가능
- 정부의 소버린 AI 확보 움직임과, 국내 CSP·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국산 반도체 수요가 맞물리며 자본 및 레퍼런스 확보
- 국민성장펀드는 26년 3월 리벨리온에 2,500억원, 5월 퓨리오사AI에 3,700억원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며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육성 의지 확인

▶ 온디바이스 특화 NPU

- AI 연산이 클라우드 중심에서 스마트폰, PC, 가전, 차량 내부로 이동. 또한 개인정보 보호, 지연시간 감소 등 수요 증가로 온디바이스 AI 확대
-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확산으로 새로운 수요처 등장. 향후 AI가 하드웨어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을수록 온디바이스 NPU 확산 기대

주요 NPU 기업 3사 매출액 추이



자료: Dart 삼성증권

국내 NPU 분야별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분야
데이터센터 특화 NPU			
리벨리온	640 (프리IPO)	26년 3월	AI 추론 연산 특화 NPU
퓨리오사 AI	800 (프리IPO)	진행 중	AI 추론 연산 특화 NPU
하이퍼엑셀	500 (시리즈B)	26년 6월	LLM 추론 특화 LPU
온디바이스(엣지) 특화 NPU			
딥엑스	110 (시리즈C)	24년 5월	온디바이스 NPU
보스반도체	87 (시리즈A)	26년 2월	차량 특화 NPU
모빌린트	70 (시리즈C)	26년 4월	온디바이스 N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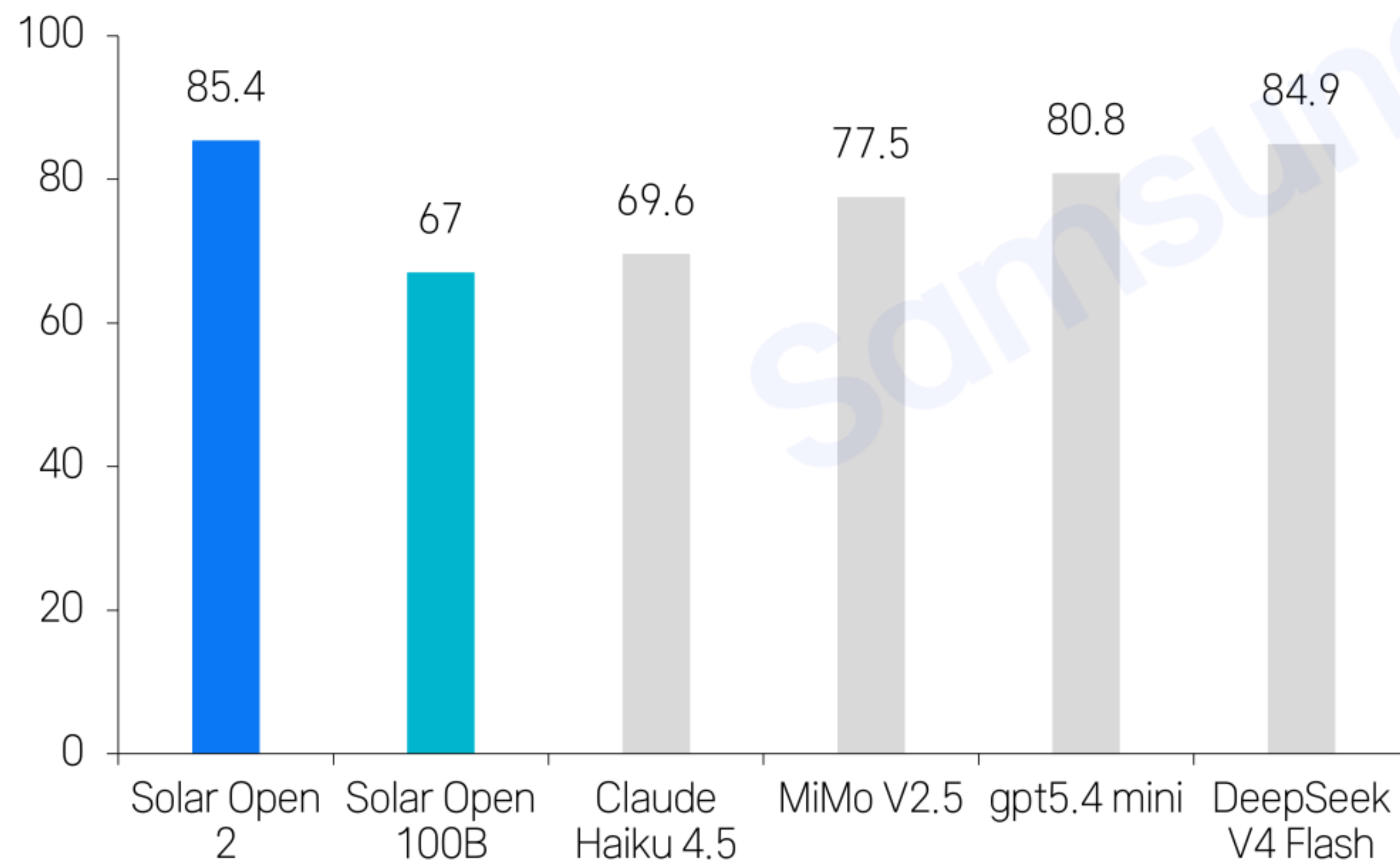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1) Review - NPU, 파운데이션 모델

국내 파운데이션 벤처 기업, 소버린 AI 수혜

- 한국어·법률·행정 등 국내 특화 지식을 반영하고,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 금융, 제조, 공공 등 데이터 보안이 엄격한 산업군에서 온프레미스로 탑재할 수 있는 sLLM 및 전문 도메인 모델 수요가 확대
-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 등 프로젝트 등을 통해 GPU 인프라와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국내 정예팀 육성을 추진
- 정예팀 선정: (3차 진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탈락)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기술 기반 NPU 칩에 최적화된 독자 모델을 결합해 인프라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묶어 공급하는 시너지 도모
- 국민성장펀드는 LLM 벤처 기업 업스테이지에 1,000억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직접 투자하며 소버린 AI 육성 의지 확인

업스테이지 오픈형 Solar Open 2 - 한국어 벤치마크에서 동급 모델 중 1위



참고: Solar Open 100B는 전작 모델
자료: 업스테이지, 삼성증권

글로벌 버티컬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분야
언어 모델 (LLM) 특화			
업스테이지	560 (프리IPO)	26년 5월	문서 처리 및 엔터프라이즈 LLM
스캐터랩	50 (시리즈D)	26년 6월	감성 대화 및 소셜 인터랙션 특화
모티프테크놀로지	24 (시리즈B)	26년 5월	언어·멀티모달
포티투마루	14+ (시리즈B)	24년 5월	기업 내부용 맞춤형 sLLM
영상 모델 (VFM) 특화			
트웰브랩스	150 (시리즈B)	26년 7월	영상 특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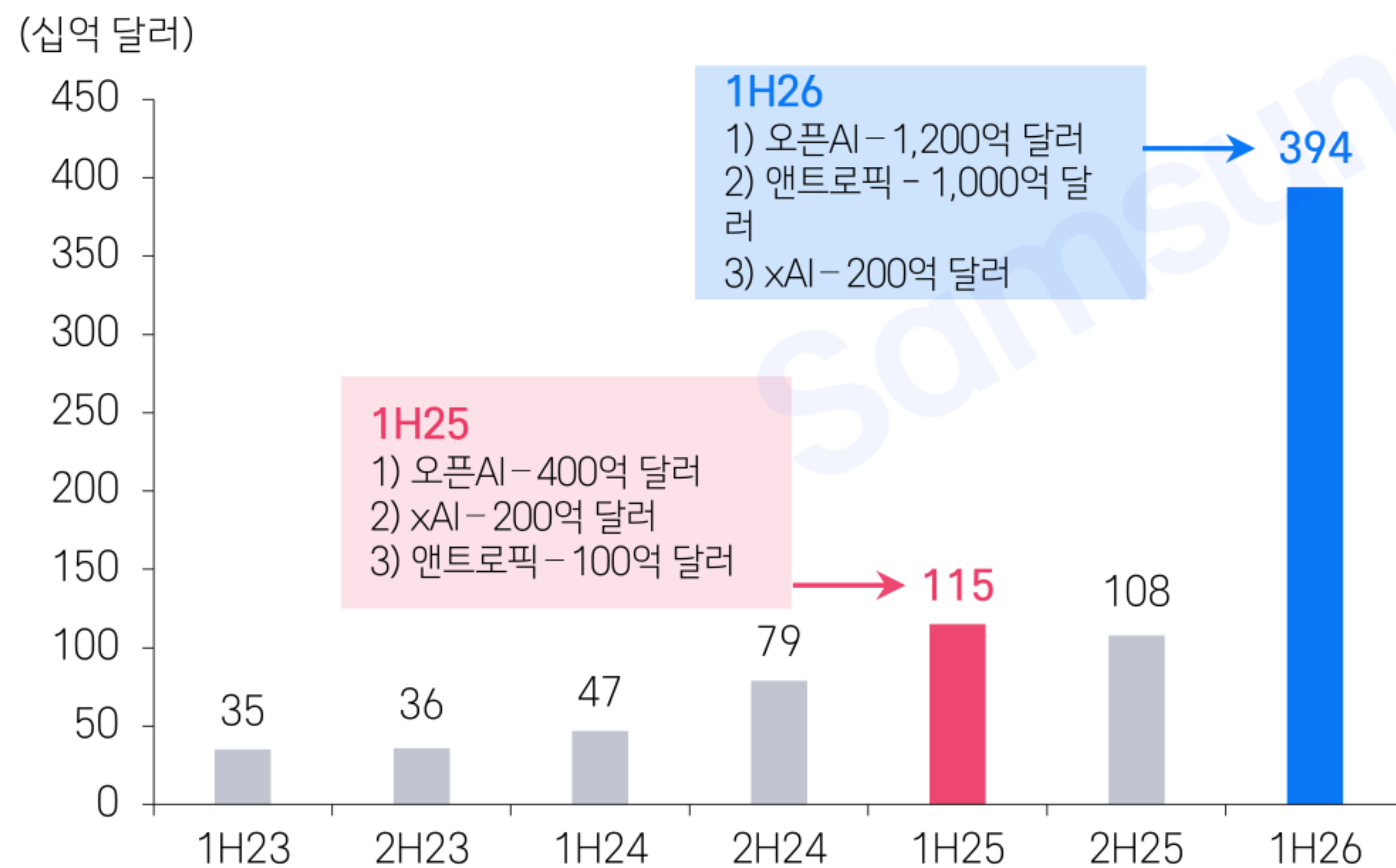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1) Review - NPU, 파운데이션 모델

글로벌 VC시장 - AI 중심 재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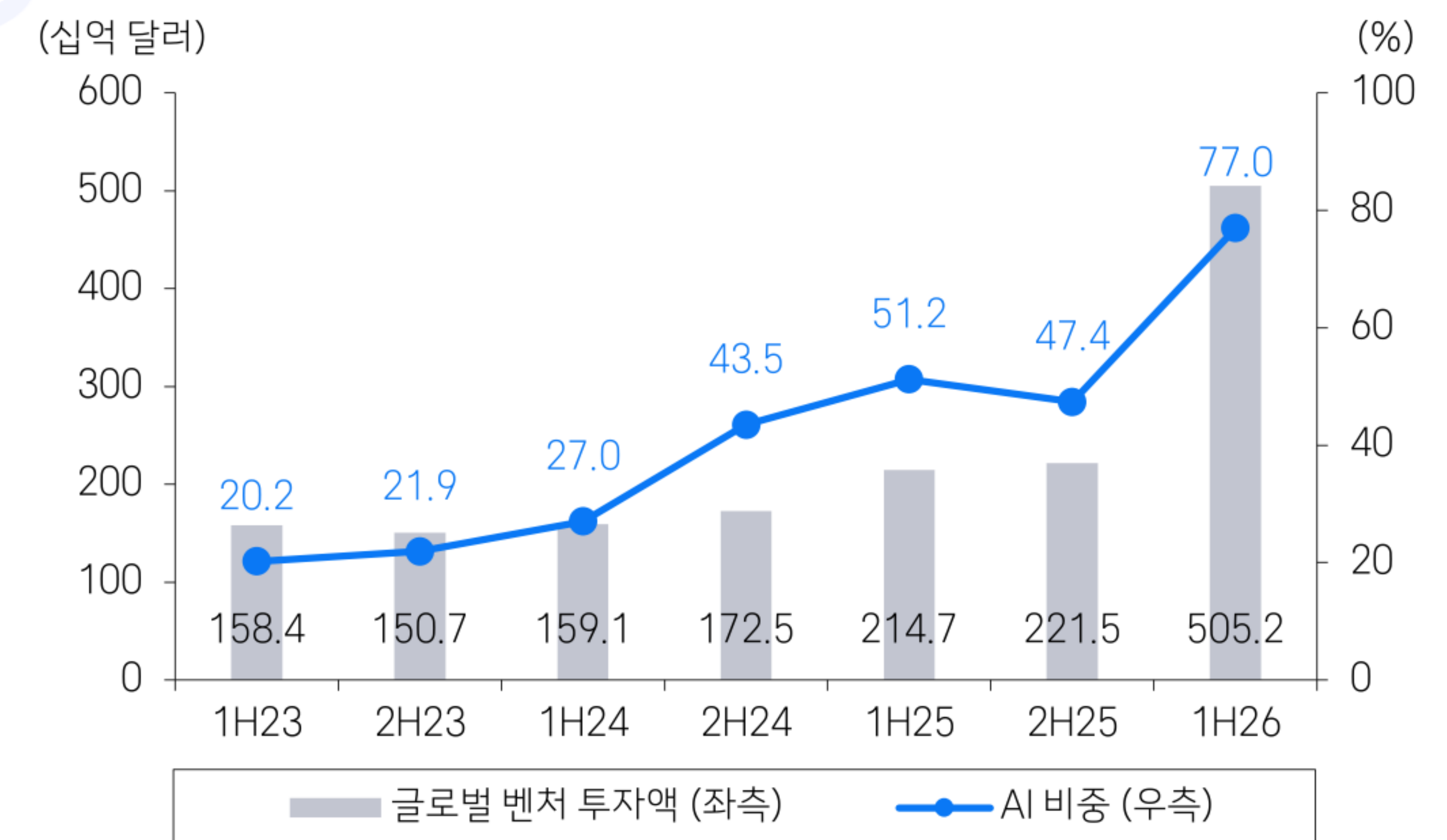
- 2025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2,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2023년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되며 벤처 투자 자금은 AI로 쏠림
- 올해 상반기 AI 투자 규모는 약 3,940억 달러로 전년 반기 대비 +242% 증가.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20% → '26년 77%까지 확대
- 1H25, 1H26 모두 OpenAI, Anthropic, xAI 등 프론티어 모델 투자가 초대형 라운드를 주도하며 중심축을 형성
- 특히 모두 OpenAI, Anthropic, xAI 3사 합산 펀딩 1H25 610억 달러 → 1H26 2,400억 달러로, 프론티어 모델 중심의 자본 집중 현상을 보여줌
-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벤처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홀로 진화하고 있음

글로벌 AI 투자액 추이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글로벌 벤처 투자액 중 AI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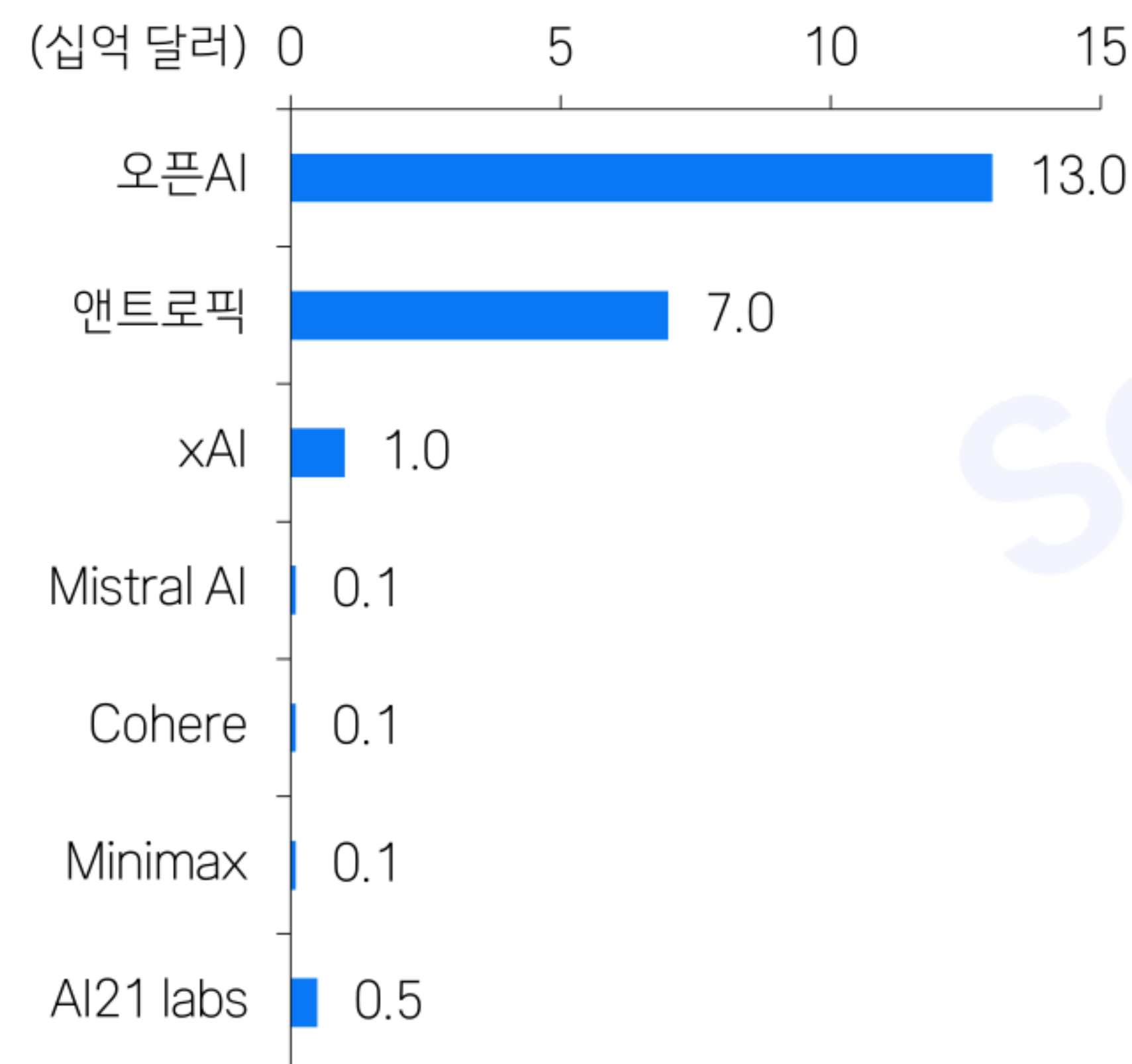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1) Review - NPU, 파운데이션 모델

글로벌 VC시장 - 파운데이션 모델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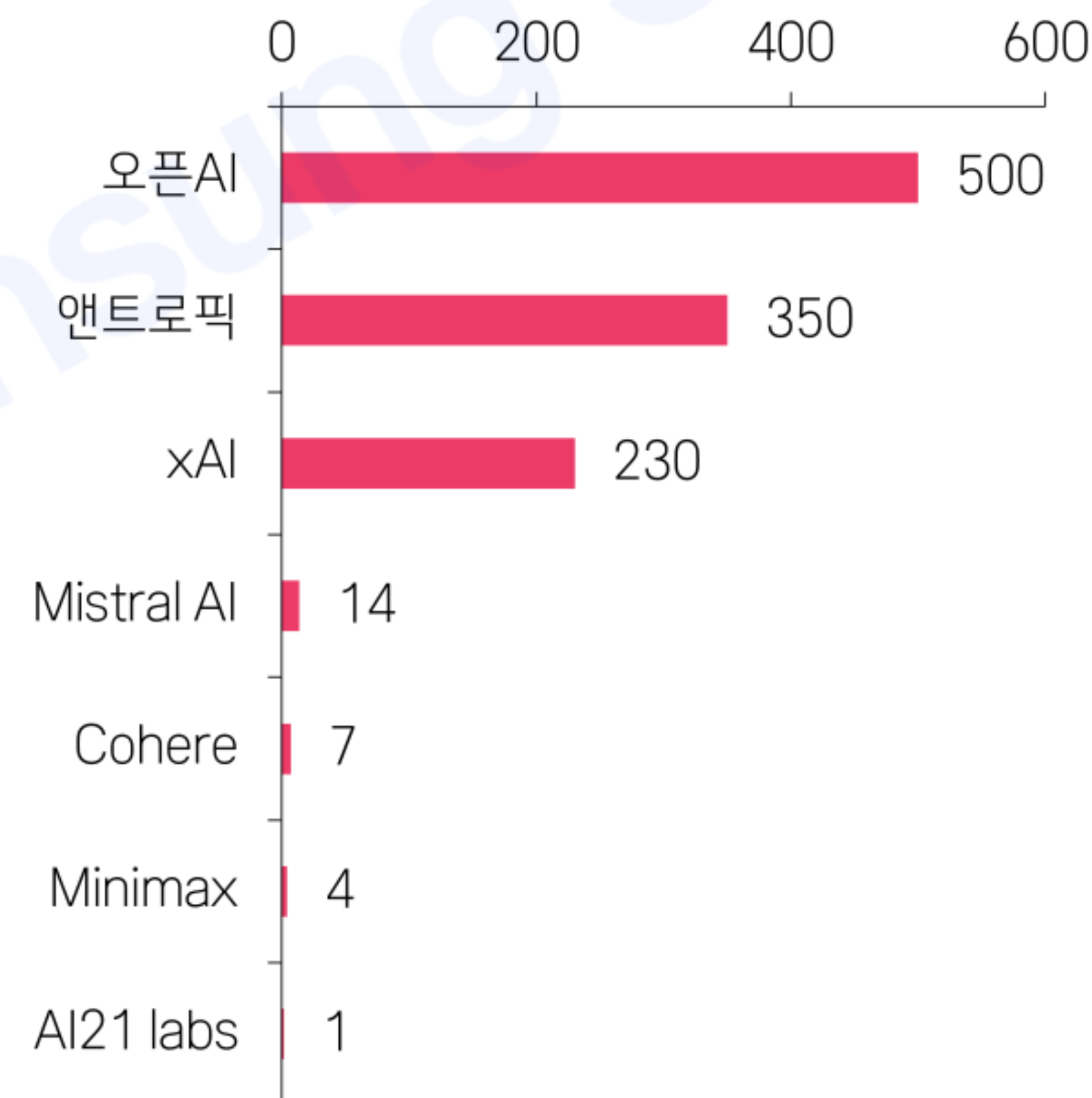
- '25년 투자 라운드 당시 기업 가치 : OpenAI 5조달러(+218% YoY), Anthropic 3.5조달러(+1,802% YoY) vs Space X 4조달러 (+14% YoY)
- '26년 미국 펀딩 라운드 TOP 10은 AI 기업이 전부를 차지. 특히 투자금은 프론티어 모델 관련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모습
- AI가 벤처 투자의 핵심 테마로 자리잡았지만,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은 이미 수조 달러 기업 가치에 도달해 신규 및 저라운드 VC가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
- 해당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성장 기대를 반영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확대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 매출액 (25년 기준)



자료: CBInsight, 삼성증권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 기업 가치 (25년 기준)



자료: CBInsight, 삼성증권

26년 미국 펀딩 라운드 TOP 10 - 모두 AI 관련

기업명	투자 금액 (십억 달러)	날짜	분야
OpenAI	110	2월 27일	AI
Anthropic	65	5월 29일	AI
Anthropic	30	2월 13일	AI
Xai	20	1월 9일	AI
Waymo	16	2월 6일	자율주행
OpenAI	10	3월 27일	AI
Anthropic	5	4월 24일	AI
Anduril	5	5월 15일	디펜스 테크
SSI	5	7월 31일	AI
Shield AI	2	3월 27일	디펜스 테크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Physical AI

Next Unicorn: Scale → Application

- 지난 수년간 AI 투자는 파운데이션 모델,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Scale 확보를 위한 인프라 경쟁이 중심이었음
- AI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모델 성능은 상향 평준화. 이를 활용해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수익화하는 영역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것
- OpenAI, Anthropic 등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은 펀딩 경쟁을 지속하겠지만, 이미 높은 기업 가치에 도달한 만큼 신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제한적
- 국내 역시 NPU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파운데이션 모델(업스테이지 등)은 이미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 및 대규모 자금 조달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 향후 투자는 1) AI Agent, 2) Physical AI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이는 기업의 업무 및 산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

AI 투자 축 확대: Scale → Application

비교	Scale	Application
투자 대상	Foundation Model, NPU, Data center 등	AI Agent, Vertical AI, Physical AI
투자 논리	성능 경쟁, 컴퓨팅 확보	생산성 개선, ROI 확보, 실생활 적용
글로벌 대표 기업	OpenAI, Anthropic, xAI 등	Anyphere, Sierra, Harvey, Figure AI, Apptronik, Wonder 등

참고: 삼성증권

국내 '23-24년 VS '25-26년 초중기 TOP 10 투자 기업

순위	23-24년 TOP 10		25-26년 TOP 10	
	기업명 (분야)	투자 금액 (십억원)	기업명 (분야)	투자 금액 (십억원)
1	리벨리온 (DC NPU)	170	홀리데이로보틱스 (로봇)	155
2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130	엑시나 (GPU 인프라)	150
3	PIP랩스 (웹3 IP)	109	트웰브랩스 (AI 멀티모델)	150
4	업스테이지 (AI LLM)	100	뤼튼 (AI 에이전트)	100
5	파네시아 (CXL 반도체)	80	포인투테크놀로지 (AI 인프라)	100
6	스토리프로토콜 (웹3)	71	더블랙레이블 (엔터)	100
7	트웰브랩스 (AI 멀티모델)	70	블루엘리펀트 (안경)	100
8	사피온 (DC NPU)	60	위로보틱스 (로봇)	95
9	레브잇 (커머스)	60	디노티시아 (AI 솔루션)	90
10	에버온 (EV 충전)	50	보스반도체 (엣지 NPU)	87

기업명, 투자액 ~시리즈B 투자 유치 기업 기준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① AI Agent -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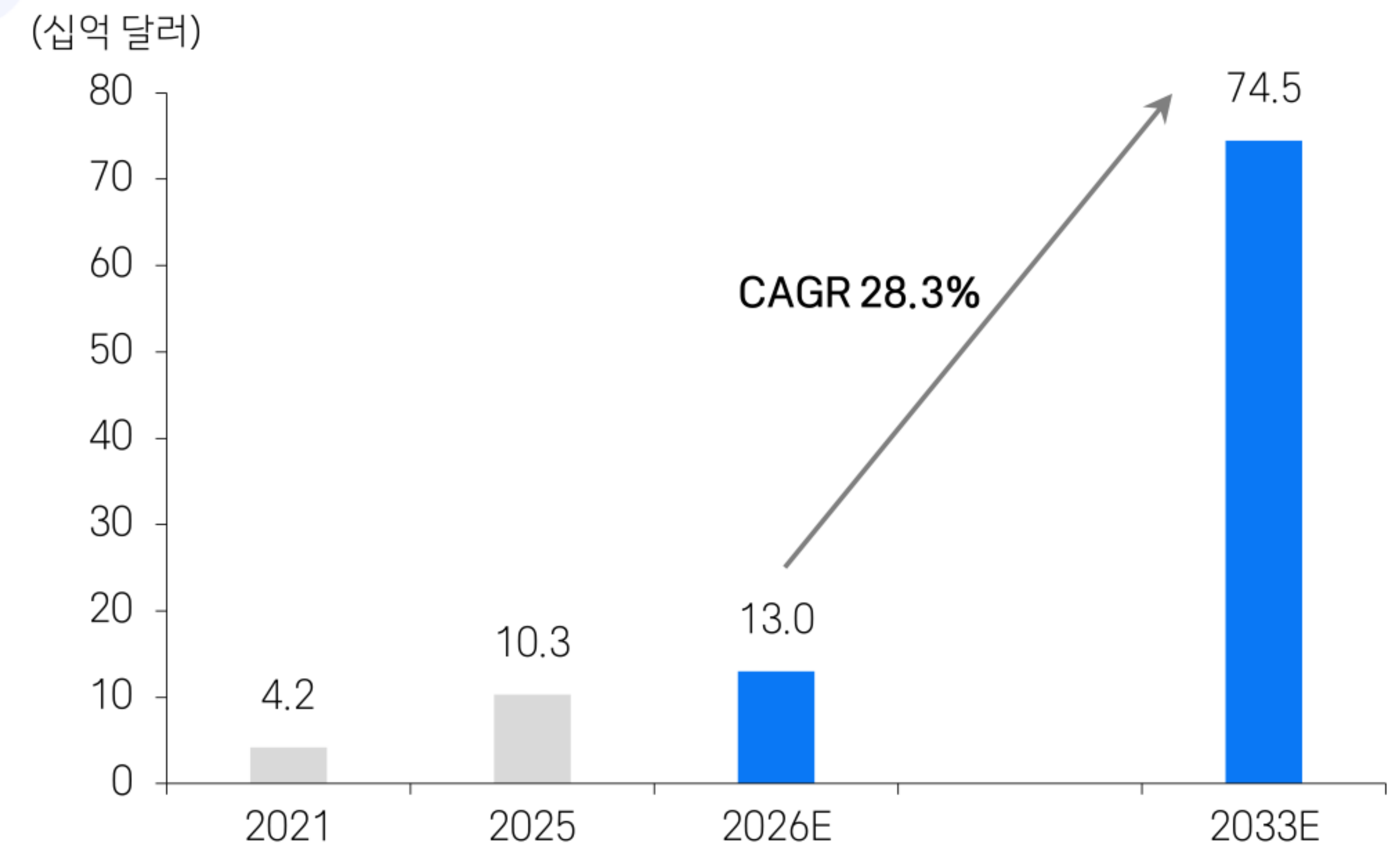
-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도구와 시스템을 사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AI 모델의 성능 상향 평준화 및 토큰 하락으로, 기업들의 관심은 “누가 더 똑똑한 AI인가?”에서 “누가 실제 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가?”로 이동
-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업무 자동화 비율 등 측정 가능한 ROI를 요구하기 시작, AI 에이전트는 이를 구현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상
- Salesforce, Microsoft, ServiceNow 등 글로벌 SaaS 기업들도 AI 에이전트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재편을 주도
- Gartner는 에이전트 AI를 통한 일상적 업무 의사결정 비중이, 2024년 0% → 2028년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I 에이전트의 5가지 유형

1) 단순 반사 에이전트	• 환경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 조건-행동이라는 사전 정의된 규칙을 따라서만 의사 결정
2)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	• 여전히 조건-행동 규칙에 의존하지만, AI 모델을 적용 • 과거 & 현재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제시
3) 목표 기반 에이전트	• 문제 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 접근 방식을 보유 • 목표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행동을 판단 후 수행
4) 유용성 기반 에이전트	• 다양한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고, 가장 최적의 행동 방침을 결정 • 여러 목표나 및 해관계가 관련된 상황에서 효과적
5) 학습 에이전트	• 새로운 경험과 데이터에 적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을 향상 •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성과

자료: IBM, 삼성증권

글로벌 버티컬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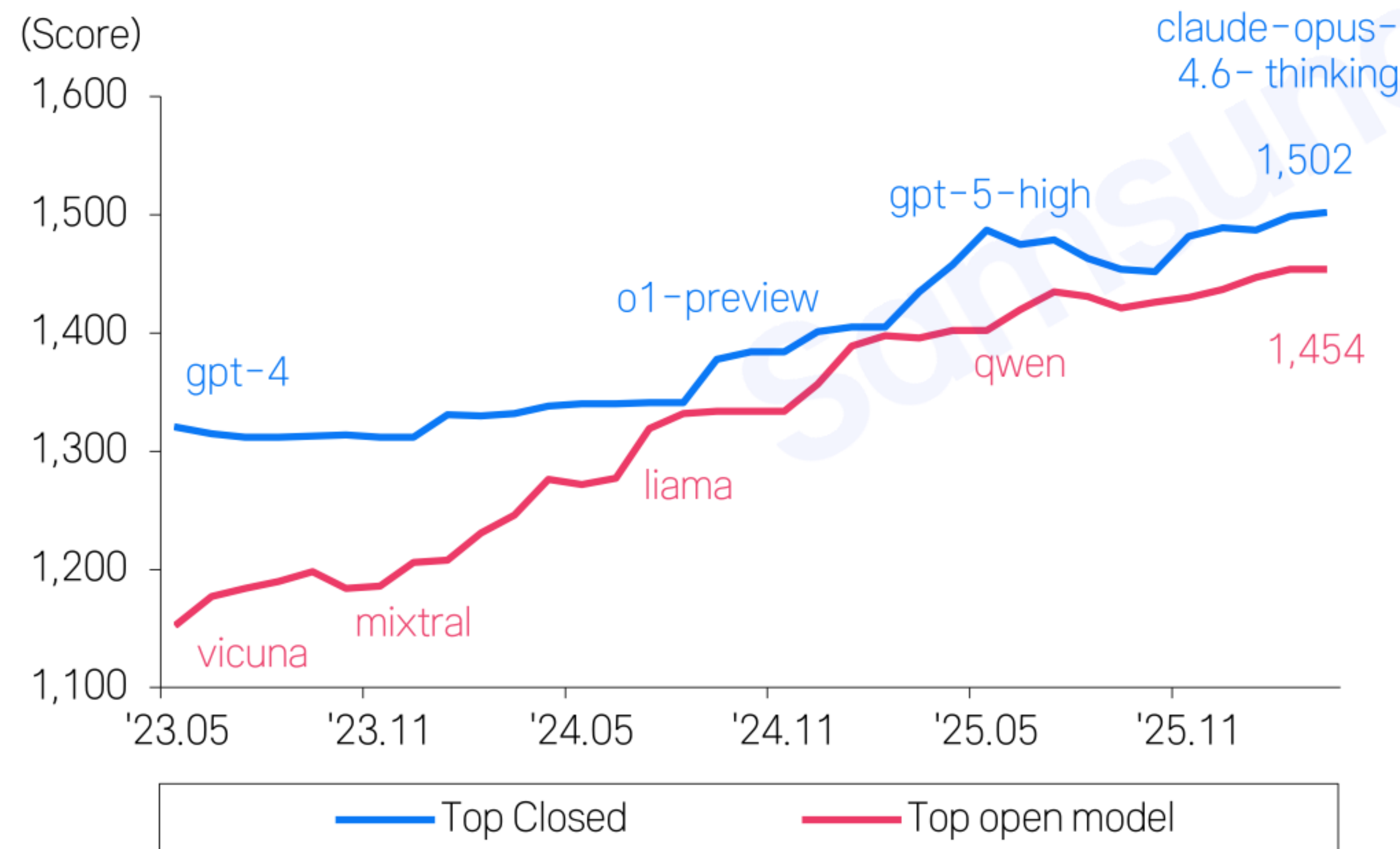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 Company,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모델은 범용화, 가치는 Application으로 이동

- DeepSeek, Llama, Qwen 등 오픈 모델의 등장으로 전반적 성능은 빠르게 향상, 프론티어 모델과의 성능 격차는 점차 축소
- 모델 공급 증가와 경쟁 심화로 API 단가는 지속 하락하는 반면, AI 평균 성능은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의 AI 도입 니즈는 증가하지만 비용은 감소
- 기업들은 복잡한 추론, 의사결정 업무는 프론티어 모델을 사용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는 저가 모델을 적용하는 멀티-모델 전략 확대
- 비교적 성능 높은 AI 모델들을 범용 인프라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업무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기업 중요성 부각

Closed vs open models 성능 비교



자료: Arena, 삼성증권

백만 토큰당 가격 비교

비교	피크 가격 (날짜)	최신 가격 (날짜)	하락률 (%)
Stanford benchmark (GPT-3.5-level performance on MMLU)	20달러 (22년 11월)	0.07달러 (24년 10월)	-99.65
OpenAI input price: GPT-4 8K → GPT-5 nano	30달러 (23년 3월)	0.05달러 (25년 8월)	-99.83
OpenAI output price: GPT-4 8K → GPT-5 nano	60달러 (23년 3월)	0.4달러 (26년 8월)	-99.33
OpenAI input price: GPT-4 32K → GPT-5 nano	60달러 (23년 3월)	0.05달러 (26년 8월)	-99.92
OpenAI output price: GPT-4 32K → GPT-5 nano	120달러 (23년 3월)	0.4달러 (26년 8월)	-9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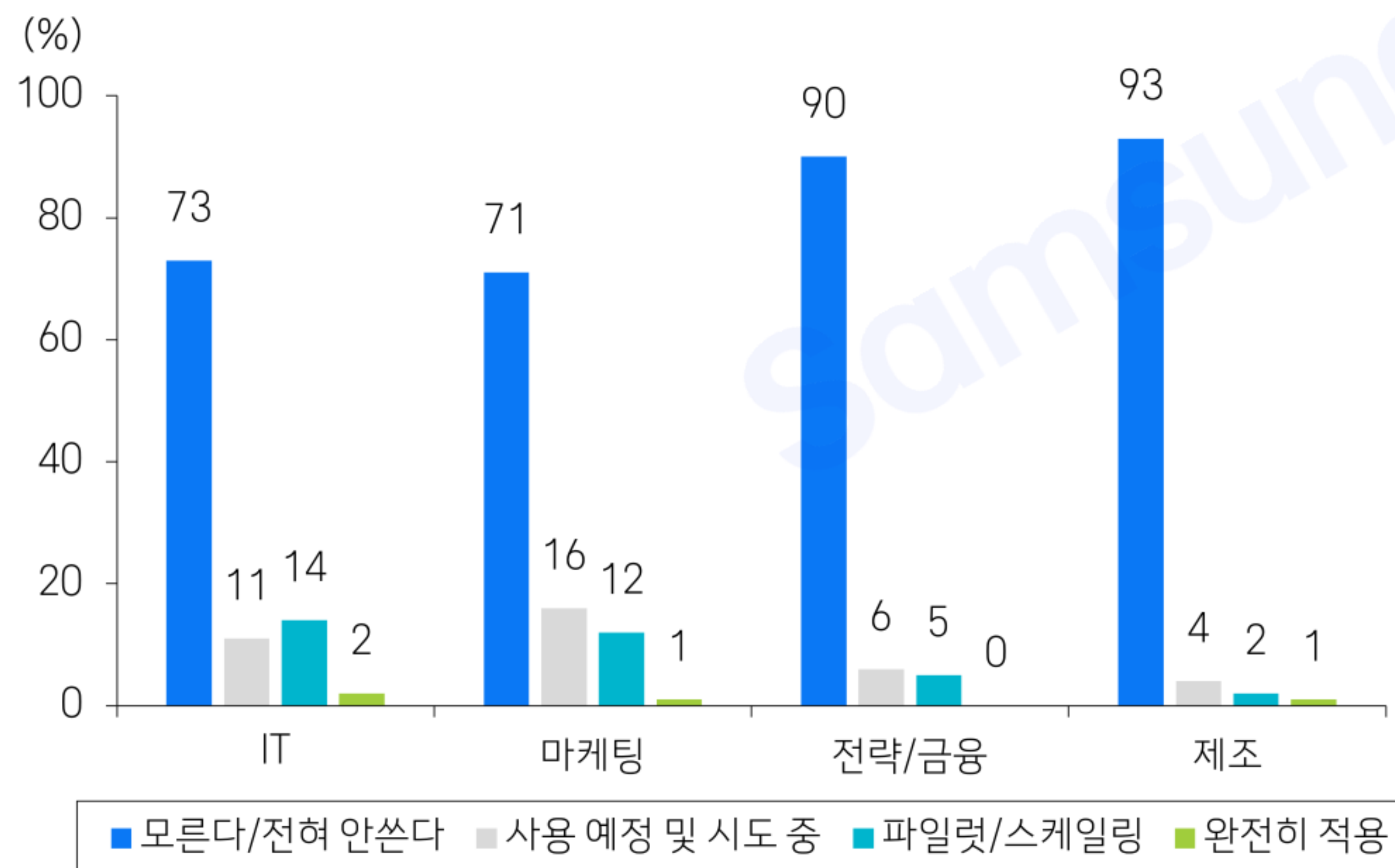
자료: Stanford AI Inex, OpenAI,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Vertical Agent, 프론티어 모델과의 차별화가 중요

- Menlo Ventures에 따르면 AI Application 지출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5년 370억 달러로 급증. AI 산업의 가치는 활용 영역으로 이동 중
- 다만 ChatGPT, Claude, Gemini 등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 역시 Agent 기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업무 자동화 경쟁 본격 진입
- 막대한 CAPEX를 투입하는 프론티어 범용 에이전트를 이기기는 불가능. 산업별 전문성 및 독점 데이터로 빅테크와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요
- Vertical Agent는 범용 모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 (CX, 의료, 법률 등) 및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직접 수행 및 완결
- 공개 웹에서 수집 불가능한 산업별 독점 데이터와 기존 업무 시스템(CRM·ERP 등)을 결합해, 범용 모델 대비 높은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가능
- 또한 기존 전문 인력을 대체하거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높은 가격 책정이 가능하며, 고객 락인 효과도 확보 가능

분야별 AI 에이전트 사용률



자료: Menlo Ventures, 삼성증권

글로벌 AI 에이전트 분야별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백만 달러)	날짜	분야
코딩·개발자용 에이전트			
Anysphere	2,300(시리즈D)	25년 11월	코딩 에이전트 (Cursor)
Cognition	500 (시리즈C)	25년 8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플랫폼
Replit	400 (시리즈D)	26년 3월	자연어 기반 애플리케이션 생성
고객 서비스 (CX)			
Sierra	950 (기타)	26년 5월	AI 고객 지원 에이전트
Hark	700 (시리즈A)	26년 5월	고객 응대 및 상담 업무 자동화
Decagon	250 (기타)	26년 1월	기업 고객센터 운영 자동화
기타 Vertical 에이전트			
Mercor	350 (기타)	25년 10월	AI 채용
OpenEvidence	250 (시리즈D)	26년 1월	의사들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
Harvey	200 (기타)	26년 3월	법률 문서 검토 및 작성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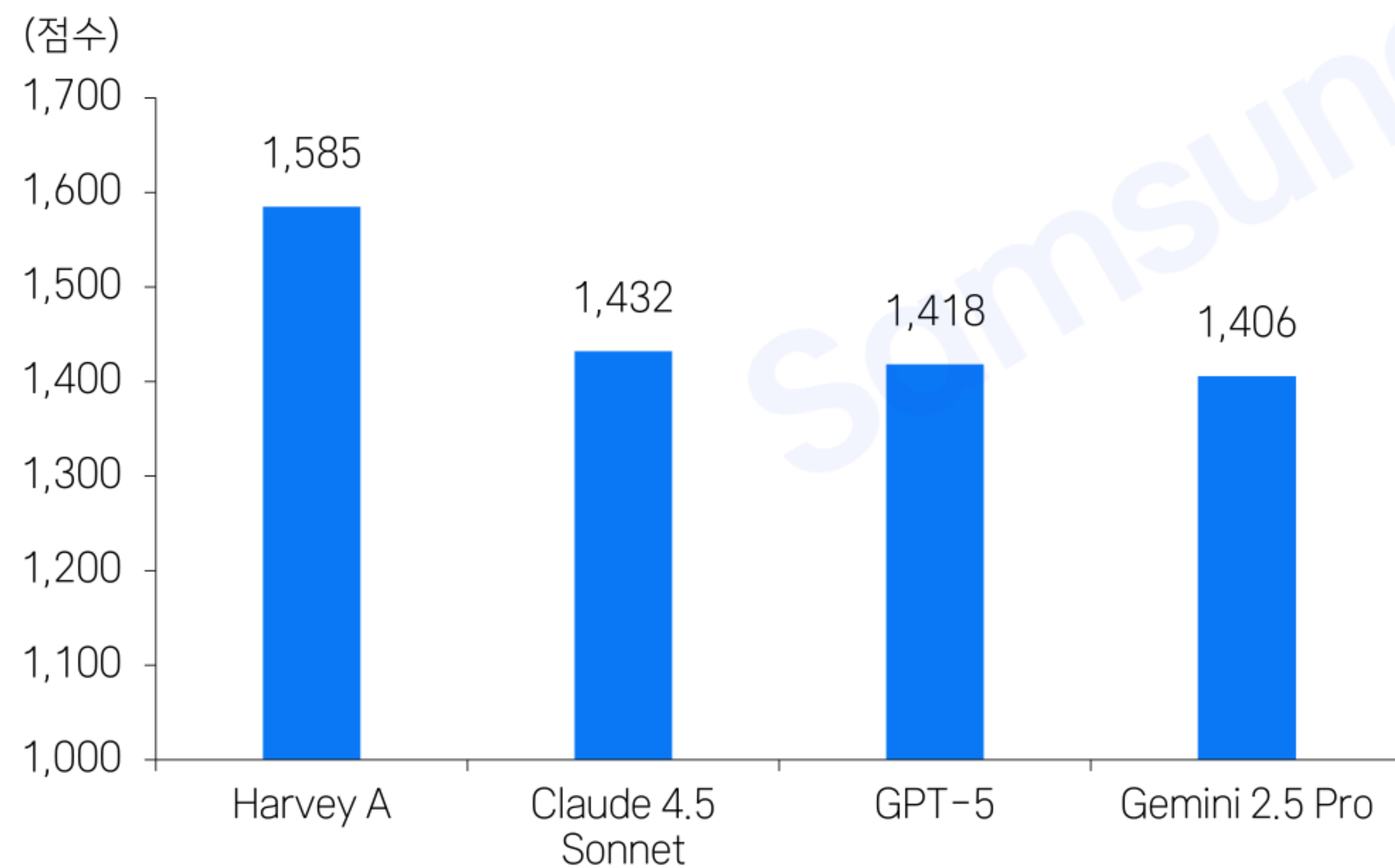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Vertical Agent 미국 벤처 기업 - Harvey

- Harvey는 법률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계약서 검토,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실사 등 복잡한 법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며 빠르게 성장
- 법률 산업은 높은 전문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범용 AI 대비 도메인 특화 데이터와 독점 전문 지식의 가치가 부각되는 영역
- 로펌 및 기업 법무팀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법률 데이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용 AI가 쉽게 접근 불가능한 진입 장벽을 구축
- 전 세계 1,300개 조직의 10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해당 에이전트를 사용 중이며, 다수의 글로벌 로펌 및 엔터프라이즈들이 사용 중
- 26년 3월 GIC(싱가포르 국부펀드), Sequoia 등으로부터 2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기록, Vertical Agent 분야 대표 유니콘 등극

주요 모델들과의 벤치마크 비교



자료: Harvey, 삼성증권

Harvey의 투자 라운드별 기업 가치

라운드	투자 시기	투자금 (백만 달러)	기업 가치 (백만 달러)
시리즈A	23년 4월	21	
시리즈B	23년 12월	80	715
시리즈C	24년 7월	100	1,500
시리즈D	25년 2월	300	3,000
시리즈E	25년 6월	300	5,000
Fresh Funding	26년 3월	200	11,000

자료: Harvey,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AI Agent - 국내 주요 벤처 기업

- 글로벌 기업들이 범용 에이전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국내는 해외 사업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버티컬 에이전트 중심으로 BM 구축 중
- 법률·세무·행정 등 한국 고유의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는 현지화 및 정확성이 필수적인 영역, 국내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
- 의료/임상 데이터, 제조, 공공 등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인 분야 역시도 AI 에이전트가 많이 등장. 해당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핵심 경쟁력
- 금융, 공공, 대기업 중심으로 망분리 및 보안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온프레미스 기반 AI 에이전트 구축 수요도 더욱 확대될 전망

국내 버티컬 AI 에이전트 분야별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투자자	분야
플랫폼·서비스				
뤼튼테크놀로지스	100 (시리즈C)	26년 8월	코어라인벤처스, 유진자산운용, 굿워터캐피탈, 앤들러글로벌, 산업은행, 캡스톤파트너스 등	생성형 AI 포털, 캐릭터 챗
라이너	27 (시리즈B)	24년 10월	에이티넘인베, 인터베스트, 삼성벤처 투자, LB인베, 캡스톤파트너스, 기업은행, SL인베 등	AI 검색 서비스
법률				
로앤컴퍼니	50 (시리즈C2)	25년 7월	IMM인베,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 투자, KDB산업은행, 스마일게이트인베,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법률 상담 에이전트
엘박스	30 (시리즈C)	25년 6월	키움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레전드캐피탈	법률 리서치 에이전트
헬스케어				
프로메디우스	21.5 (시리즈B)	26년 6월	스타셋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우리벤처파트너스·크릿벤처스, 빅무브벤처스	의료 AI 솔루션
아크	20 (시리즈A)	26년 3월	DSC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에스엘인베, 플래티넘기술투자 등	만성질환 합병증 스크리닝
엔터프라이즈				
마크비전	70 (시리즈B)	25년 9월	Peak XV, HSG, 세일즈포스벤처스, 코렐캐피탈, 와이콤비네이터 파트너	AI 기반 IP 통합 서비스
엑스포넨트	60.9 (시리즈A)	26년 6월	차일리스, 에라펀드, 인어그레이션 그룹, K8캐피탈	AI 프랜차이즈 금융
링크알파	34 (시리즈A)	26년 7월	에이티넘인베, GFT벤처스, AVP, 미래에셋벤처, 미래에셋캐피탈, 이스트벤처스, 하나벤처스 등	금융 AI
윌트인텔리전스	16.5 (시리즈B)	26년 7월	알토스벤처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특허 학습 언어 모델
피처링	15.3 (시리즈B)	26년 5월	스틱벤처스, 알바트로스인베, 마그나인베, 하나벤처스, 키움인베,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소셜 미디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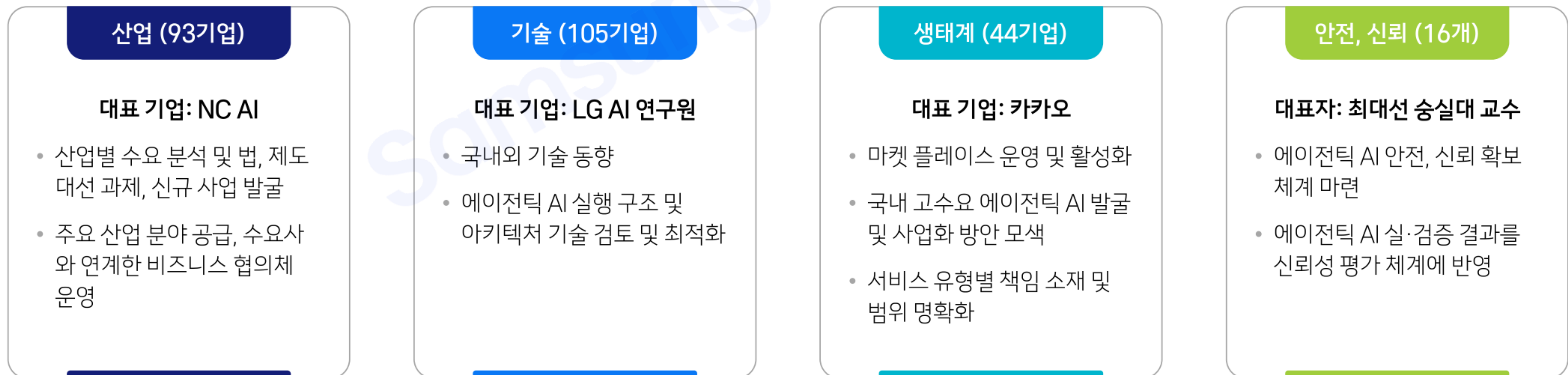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2) Forecast - AI Agent

국내 Agent AI,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과기정통부는 '26년 4월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출범.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내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
- 기술, 산업, 생태계, 안전·신뢰라는 4가지 분과로 구성. 산업 적용부터 기술 표준화, 안전성 확보까지 에이전틱 AI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
- 카카오, KT, LG AI 연구원 등 주요 대기업들도 참여하는 만큼,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대기업들과의 산업별 협력 및 상용화 확대 기대
- 국내 기업 환경을 지배하는 ERP, CRM 등 레거시 시스템 및 네이버·카카오·통신사 등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과의 연동 역량도 중요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분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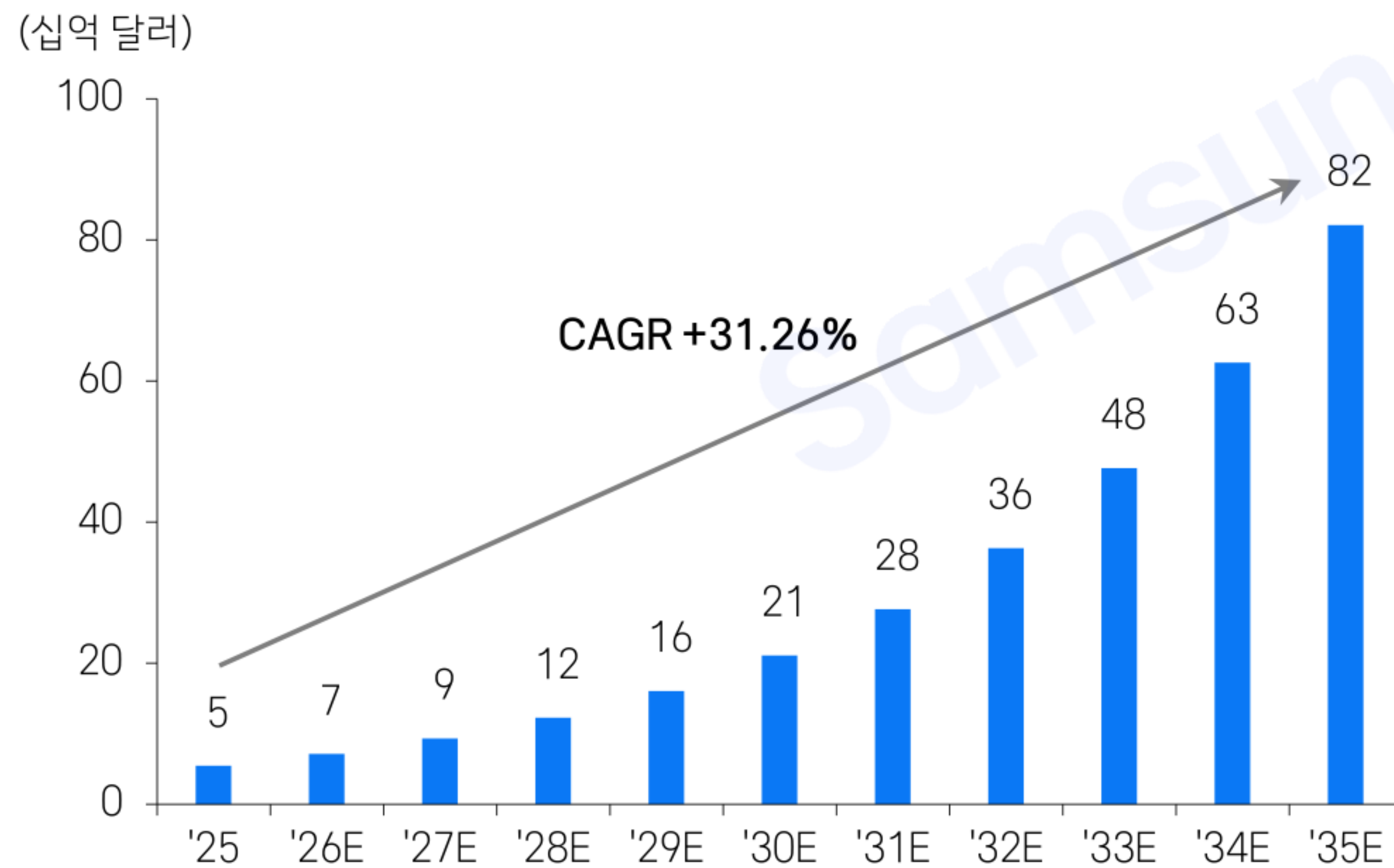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② Physical AI – 디지털에서 산업 현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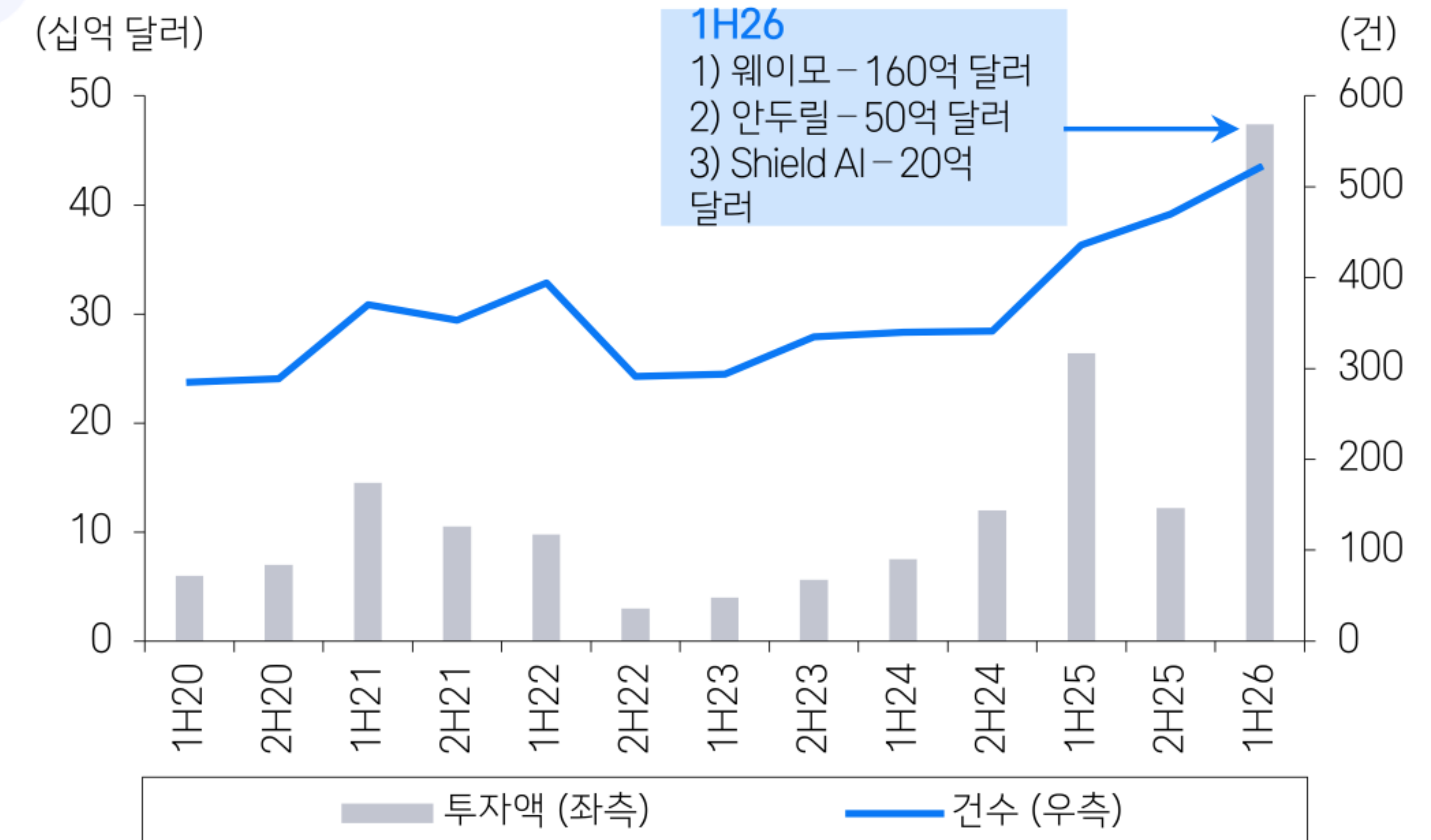
- 디지털 화면 안에서만 작동하던 AI는 알고리즘(두뇌), 센서(감각), 하드웨어·액추에이터(신체)을 얻어 실제 오프라인 작업을 직접 수행
- 정해진 궤적만 반복하던 기존 기계와 달리, 비정형 환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며 돌발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는 자율 지능 기계로 진화
-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CES 2025에서 AI가 처리와 추론, 계획과 행동이 가능한 피지컬 AI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인더스트리(약 25%) + 농림어업 (약 4%) + 현장 서비스업 등 GDP의 상당 부분에 AI를 적용 가능
- 전 세계적인 블루칼라 기피 현상, 인구 고령화, 인건비 급상승으로 기업들에게 피지컬 AI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으로 부상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전망



자료: IBM, 삼성증권

글로벌 피지컬 AI 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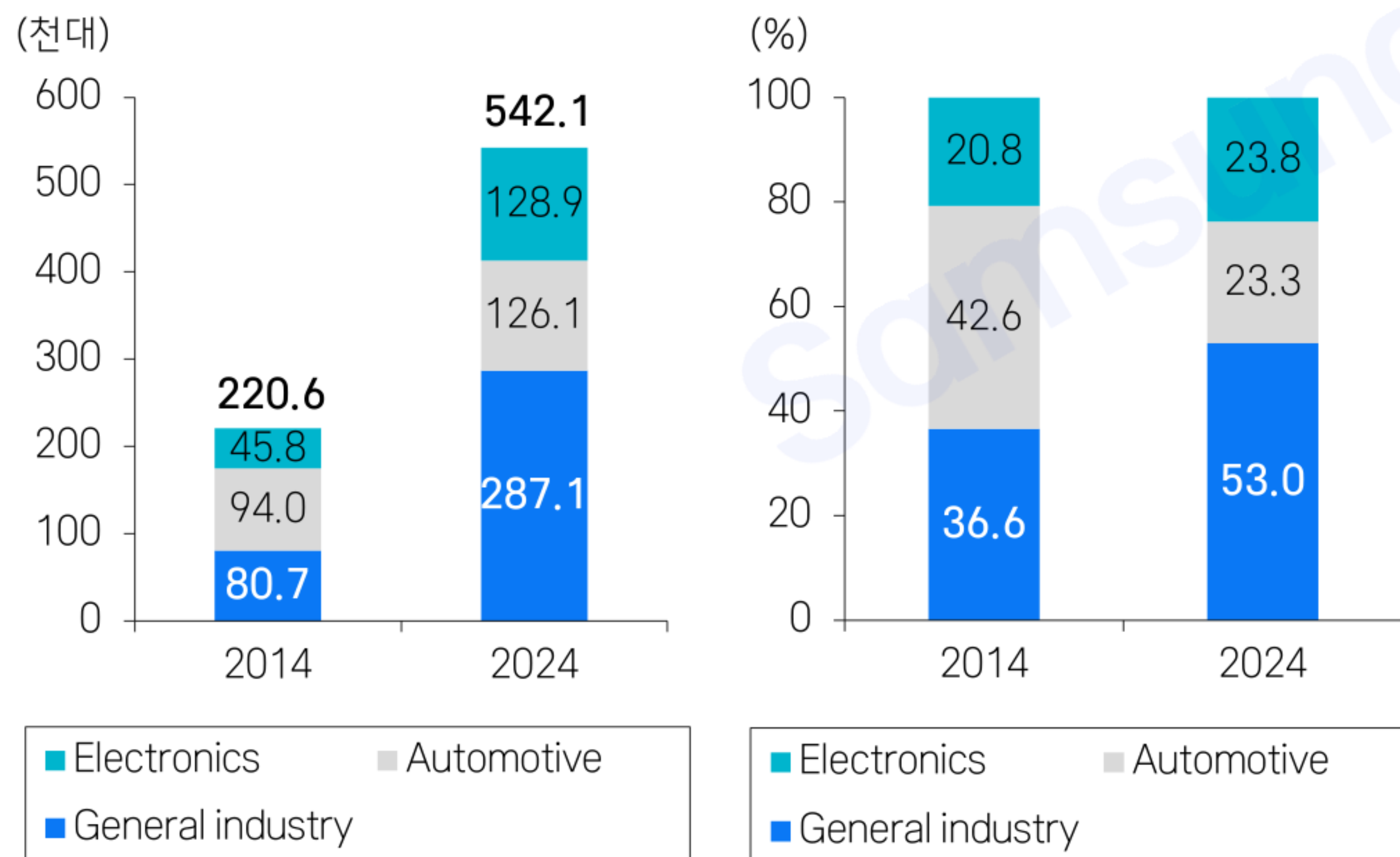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Physical AI의 핵심, 로봇틱스

- 로봇 산업 밸류체인은 로봇 제조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AI 모델·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 구분 가능
- 하드웨어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팔 형태의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중심으로 구축된 작업 환경에 투입이 가능하고 범용성이 높아 주목
- 최근에는 로봇이 스스로 인지,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이 부상하며 대규모 자금 동반 유입
-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보급이 확대될수록, 하드웨어뿐 아니라 AI 모델,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계층의 가치도 함께 증가할 전망
- 현재 글로벌 VC 자금은 관절, 센서 등 개별 부품 기업보다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

글로벌 산업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및 비중



자료: IFR, 삼성증권

로봇틱스 분야별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백만 달러)	날짜	분야
로봇 하드웨어			
Figure AI	1,000 (기타)	25년 9월	휴머노이드 (Figure)
Apptronik	520 (시리즈A+)	26년 2월	휴머노이드 (Apollo)
Mind robotics	500 (시리즈A)	26년 3월	제조업 특화 산업용 로봇
로봇 소프트웨어			
Skild AI	1,400 (기타)	26년 1월	범용 로봇 모델
Physical Intelligence	600 (기타)	25년 11월	VLA 기반 범용 로봇 모델
Field AI	450 (기타)	25년 8월	야외·산업 환경 특화 범용 모델
Rhoda AI	450 (시리즈A)	26년 3월	인터넷 동영상 기반 학습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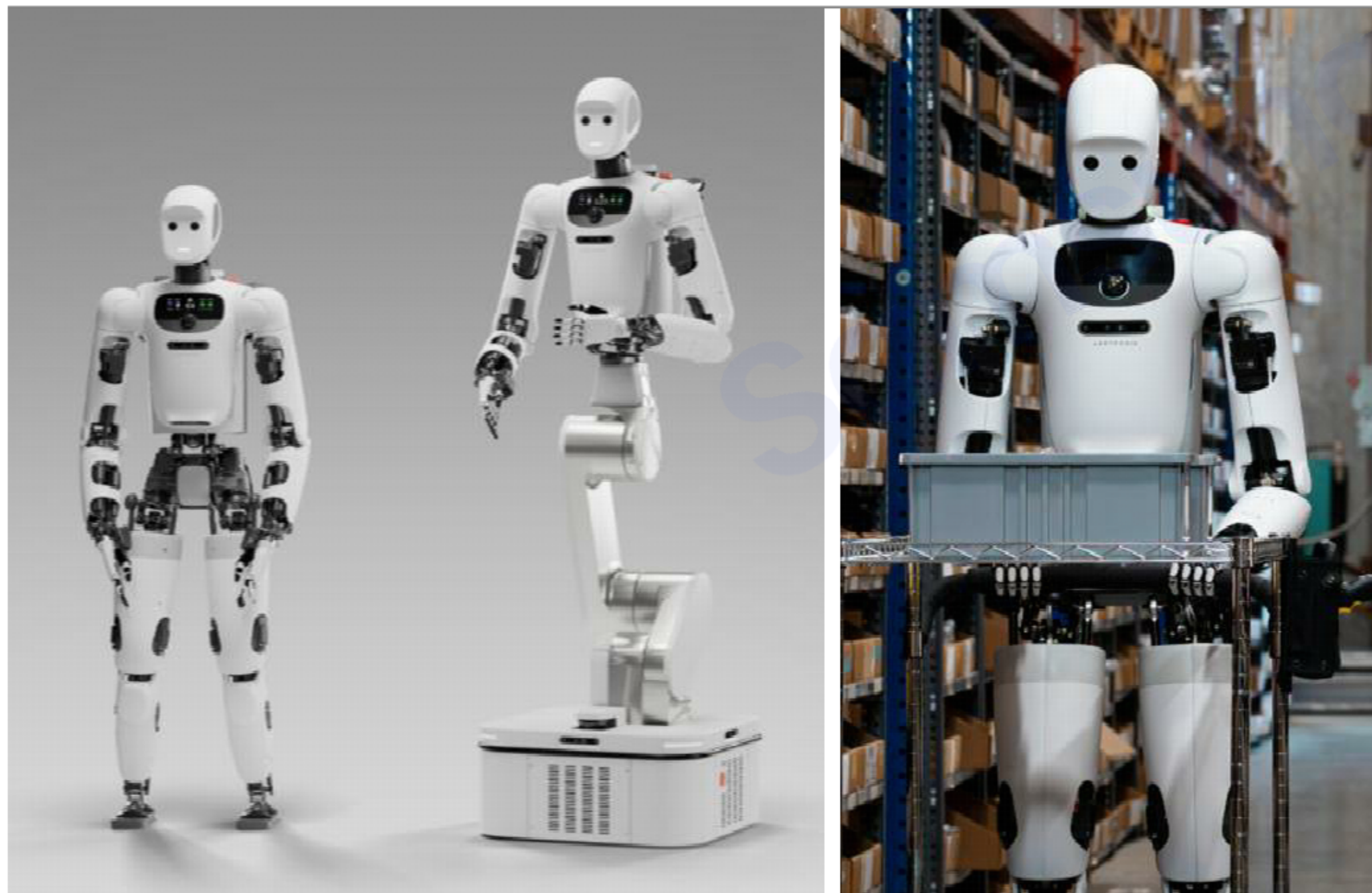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로보틱스 미국 벤처 기업 사례 - 1) Apptronik

- 애플트로닉은 NASA와 협력해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Valkyrie 로봇 등을 직접 설계 및 제작했던 핵심 연구진이 2016년 설립한 기업
- 25년 4.15억 달러 시리즈A 투자에 이어, 26년 2월 5.2억 달러의 시리즈 A-X 연장 라운드를 진행. 구글, 벤츠, QIA, 존디어 등 참여
- 23년 모듈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Apollo) 1호 공식 공개. 26년 6월 산업 맞춤형 제작 및 내구성을 개선한 아폴로 2호 라인업을 발표
- 아폴로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구글 딥마인드의 로보틱스 AI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 결합하는 파트너십 체결 (24년 12월~)
- 제조, 물류업 특화. 궁극적으로는 가정용으로도 확장할 계획. 메르세데스-벤츠, GXO 로지스틱스, 자발 등과도 협력 중

애플트로닉의 휴머노이드 - 아폴로 2호



자료: Apptronik, 삼성증권

휴머노이드 주요 기업 비교

기업명	Apptronik	Figure AI	Agility
플래그십 모델	아폴로 (Apollo)	피겨 (Figure) 02/03	디지털 (Digit)
하드웨어 폼팩터	모듈형 (2족/바퀴/고정)	완전 2족 보행	역관절 2족 보행
소프트웨어	구글 딥마인드 파트너십	자체 Helix 모델	하이브리드
주요 앵커 고객	메르세데스, GXO, 자발	BMW	아마존, GXO 물류
주요 투자자	구글, 메르세데스, QIA	엔비디아, MS, 인텔	아마존, 플레이그라운드
누적 투자 유치	약 9.35억 달러	약 19억 달러	약 6.4억 달러
기업 가치	약 55억 달러	약 390억 달러	약 21억 달러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로보틱스 미국 벤처 기업 사례 - 2) Rhoda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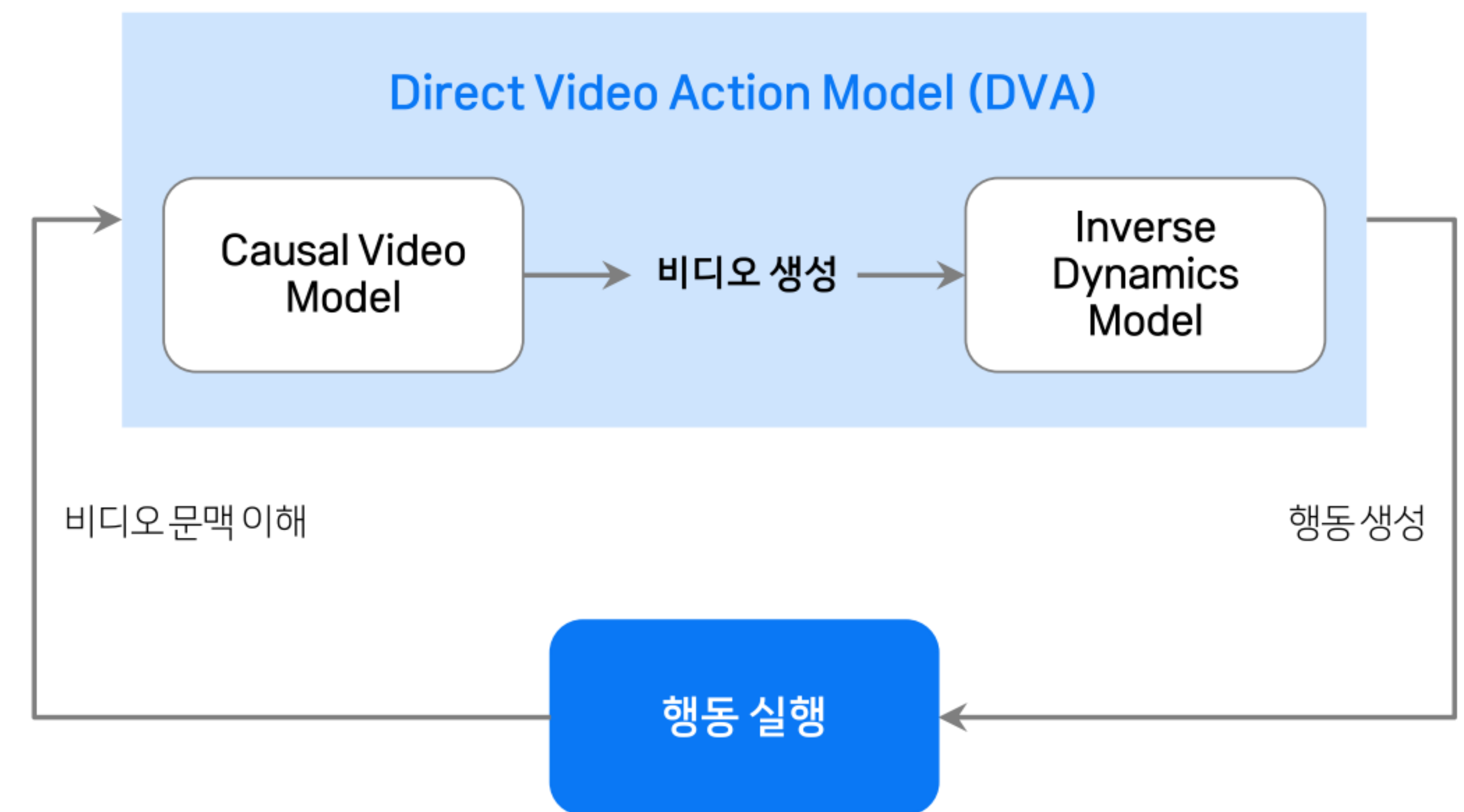
-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의 목적은 처음 보는 환경, 물체 앞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적응하는 범용성을 로봇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
- 로다 AI는 비디오 기반 행동 파운데이션 모델(Direct Video Action)으로, 기존 LLM, VLA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차이 존재
- 대량의 인터넷 동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를 통해 세상의 물리 법칙을 동영상 형태로 이해하는 것
- FutureVision 기술을 통해 로봇은 다음 상황을 비디오 형태로 예측하고, 이를 관절 토크와 모터 각도로 즉각 변환해 유연한 동작을 수행
- 26년 3월 4.5억 달러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17억 달러 달성. 공장·물류용 양팔형 하드웨어 제작 전략도 병행
- 스킨드AI(기업 가치 140억 달러)와도 유사. 다만 로다는 동영상 기반 예측이고, 스킨드는 가상 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로다 AI의 물류용 양팔형 하드웨어



자료: Rhoda AI, 삼성증권

로다 AI의 DVA 방식



자료: Rhoda AI,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Physical AI의 확장 - 국방, 오프라인

- 피지컬 AI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국방, 물류, 유통, 이동, 배달 등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 중
- 러·우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자율무기·군집로봇·AI 기반 지휘 통제 등 중요성 확대
- (25년 vs 26년 투자금: Anduril 25억 달러 → 50억 달러, Saronic 6억 달러 → 17.5억 달러, → Shield AI 2.4억 달러 → 2,000억 달러)
- 자율주행 로보택시 (Waymo), 스마트 키친 (Wonder), 드론 배달 (Zipline) 등 일생활 상용 서비스도 등장하며 오프라인 산업의 운영 방식 변화
- 향후 기업별 특화 데이터와 현장 운영 경험 등이 Physical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

글로벌 국방 피지컬 AI 분야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백만 달러)	날짜	분야
자율 공격, 방어 체계			
Anduril	5,000 (시리즈H)	26년 5월	AI, 자율시스템 기반 무기 체계
True Anomaly	600 (시리즈D)	26년 5월	우주안보, 궤도 방어 시스템
Scout AI	100 (시리즈A)	26년 5월	군사용 무인 체계 파운데이션 모델
자율 항공, 수상정			
Shield AI	2,000 (시리즈G+)	26년 3월	군용 AI 파일럿, 자율 항공기
Saronic	1,750 (시리즈D)	26년 4월	해군, 국방용 무인 수상정
Hermeus	200 (기타)	26년 4월	고속 무인 군용 항공기
드론			
Mach industries	300 (시리즈C)	26년 6월	자율 드론 시스템 제조
BRINC	125 (기타)	26년 7월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드론
PDW	110 (시리즈B)	26년 4월	드론 대량 생산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글로벌 오프라인 피지컬 AI 분야 주요 벤처 기업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백만 달러)	날짜	분야
자율주행			
Waymo	16,000 (기타)	26년 2월	무인 상용 로보택시
Nuro	203 (시리즈E)	25년 8월	화물, 식료품 자율주행
Glydways	170 (시리즈C)	26년 4월	자율 대중교통
Reliable Robotics	160 (기타)	26년 4월	상용 화물기 자율비행
기타			
Atoms	1,700 (기타)	26년 7월	조리 + 물류 + 광산 등
Wonder	650 (시리즈D)	26년 7월	차세대 F&B, 스마트키친
Zipline	600 (기타)	26년 1월	드론 자율 배송

자료: Crunchbase,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국내 Physical AI - 주요 벤처 기업 (1)

▶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산업용

- 휴머노이드 로봇은 25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본격화되며 경쟁 심화. 향후 양산 시기 및 실제 적용 사례 주목 필요
- 올해는 소프트웨어 기업 리얼월드, 컨피그 등 역시도 대규모 유치를 진행하며 국내에서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시작
- 결국 인건비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ROI'가 중요. 현재는 연구 및 실증 단계로, 향후 산업 적용을 위해선 기술력 외에도 가격 경쟁력도 중요

국내 피지컬 AI 분야 대표 벤처 기업 -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데이션, 기타 산업용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투자사	분야
휴머노이드				
홀리데이로보틱스	155 (시리즈A)	'26년 7월	스톤브릿지벤처스, 에이티넘인베, 인터베스트, IMM인베, KB인베 등	바퀴형 휴머노이드 로봇 'Friday'
에이로봇	10(시리즈A)	'25년 7월	본엔젤스벤처, 산업은행, NH벤처 투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하나벤처스 등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로브로스	10 (시리즈A)	'26년 4월	스틱벤처스, HB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컨피그인텔리전스	40 (시드)	'26년 5월	삼성벤처 투자, 제로원, LG테크놀로지벤처스, GS퓨처스, SKT, 미래에셋벤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리얼월드	39 (시드)	'26년 2월	헤드라인 아시아, Z벤처스, CJ대한통운, 카카오인베, 롯데벤처스, 한화자산운용 등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타 산업용				
카본식스	62.3 (시리즈A)	'26년 7월	LB인베스트먼트	제조 특화 피지컬 AI
노바테크	7 (시리즈A)	'26년 7월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 현대차증권, 퀀텀벤처스코리아	산업용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서울다이나믹스	5.5 (시리즈A)	'26년 7월	지애텍벤처 투자, 에이벤처스	산업 현장용 모빌리티 로봇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로봇, 반도체, 배터리 기업 및 주요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
- 정부는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
- 주요 미션 1) 로봇 공용 AI 모델 개발 - 로봇 제조사 그룹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28년까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할 계획
- 주요 미션 2) 휴머노이드 HW 핵심기술 개발 - 가벼운 무게(60kg ↓), 높은 자유도(50 ↑), 높은 페이로드(20kg ↑) 등 + 센서, 액추에이터
- 주요 미션 3) AI 반도체, 모빌리티용 배터리 개발: 리벨리온, 딥엑스, K-배터리 3사는 로봇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 방안 모색 예정

홀리데이로보틱스, 로브로스의 휴머노이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기업

로봇 기업 (12개사)		로봇 부품 기업 (11개사)	
상장사·대기업 계열	벤처 기업	상장사·대기업 계열	벤처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SK온	리벨리온
엔젤로보틱스	홀리데이로보틱스	LG에너지솔루션	딥엑스
뉴로메카	원익로보틱스	삼성SDI	테슬로
두산로보틱스	위로보틱스	로보티즈	에이딘로보틱스
LG전자	블루로빈	SBB테크	패러데이나이나믹스
HD현대로보틱스	로브로스		코모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국내 Physical AI – 주요 벤처 기업 (2)

▶ 국방·드론, 기타 로봇

- 국내 피지컬 AI 벤처 생태계는 산업 현장 중심의 B2B 로봇 비중이 높은 편, Wonder·Atoms와 같은 소비자 대상 일상 서비스 유니콘은 부족
- 글로벌로 주목받는 AI 국방, 자율무기, 무인체계 분야는 국내에선 벤처 기업 수 및 대형 펀딩 사례는 휴머노이드 대비 아직 부족
- 국내는 현장에서의 피지컬 AI를 통한 노동력 대체 여부 및 ROI 개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국방·서비스 영역 시장은 아직 제한적

국내 피지컬 AI 분야 대표 벤처 기업 - 국방, 기타

기업명	최근 투자 금액 (십억원)	날짜	투자사	분야
국방, 드론				
유비파이	60 (기타)	26년 2월	크릿벤처스, NXC	군집 드론, 자율비행 드론
파블로항공	11 (프리IPO 브릿지)	26년 5월	대한항공, LIG넥스원-IBK캐피탈, 비하이인베 등	군집 AI 항공, 방산 드론, 드론 배송
기타 로봇				
라이온로보틱스	23 (시리즈A)	25년 9월	SBVA,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퓨처플레이, 산은캐피탈, 기업은행 등	국방, 치안, 산업안전용 사족보행 로봇
로보스	25 (시리즈B)	25년 6월	KDB산업은행, 롯데벤처스, 디티엔인베, CKD창업투자, 퓨처플레이	도축 자동화 로봇 (축산업 자동화)
뉴빌리티	25.1 (시리즈B)	25년 12월	한국산업은행, 인비저닝파트너스, 크릿벤처스	배달 및 순찰 로봇 플랫폼. 휴머노이드 확장 추진
위로로보틱스	95 (시리즈B)	26년 5월	JB인베, 인터베스트, 하나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 SBVA, NH증권 등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트위니	20.4 (시리즈C)	26년 3월	아토인베, KT인베·에스엘·그래비티PE·SECO 서진오토모티브	자율주행 로봇
에니아이	5.8 (프리A)	26년 1월	산업은행	로봇 키친 벤처 기업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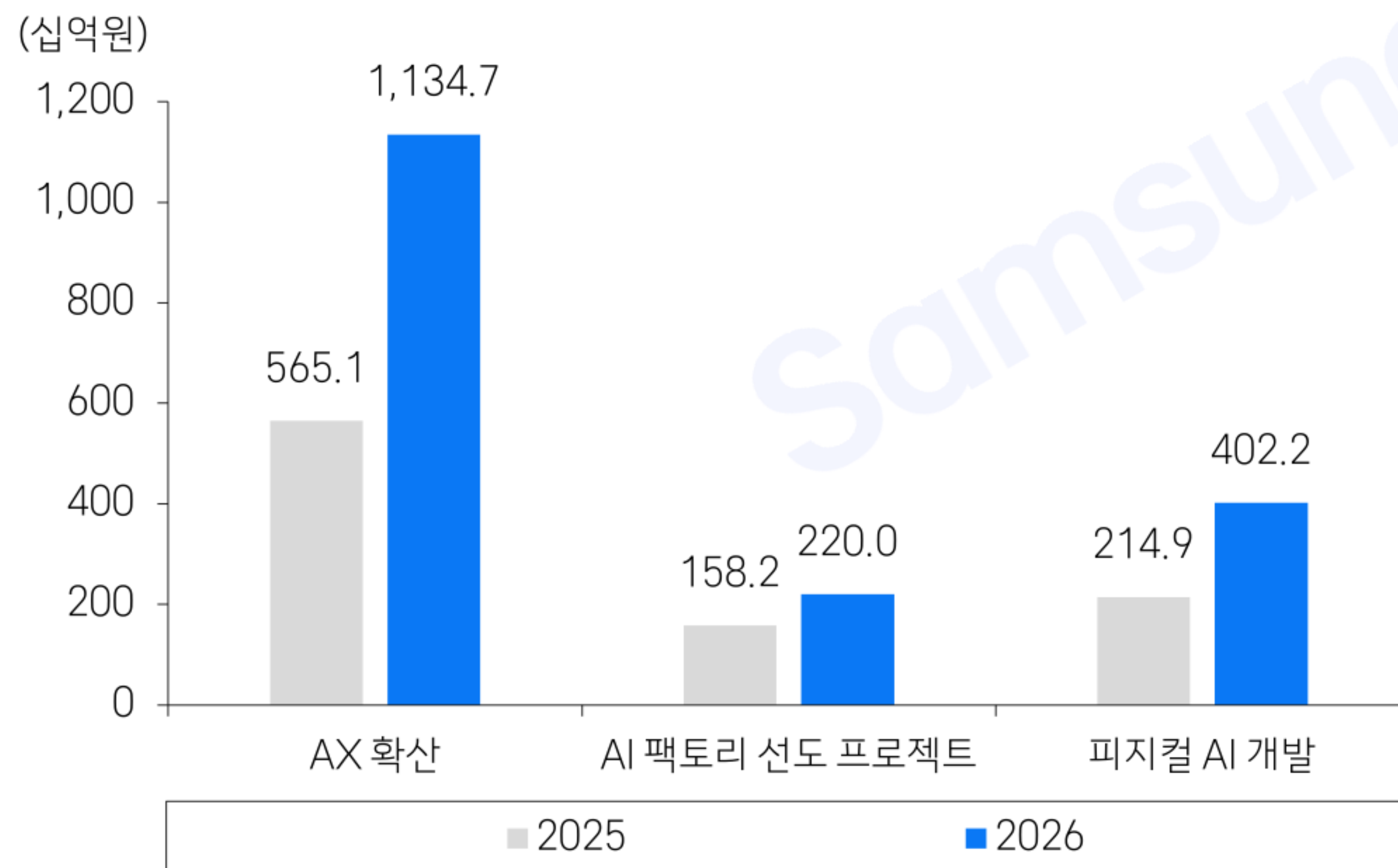
3) Forecast - Physical AI

국내 Physical AI, 일상 및 산업 자동화 영역으로의 확장 기대

▶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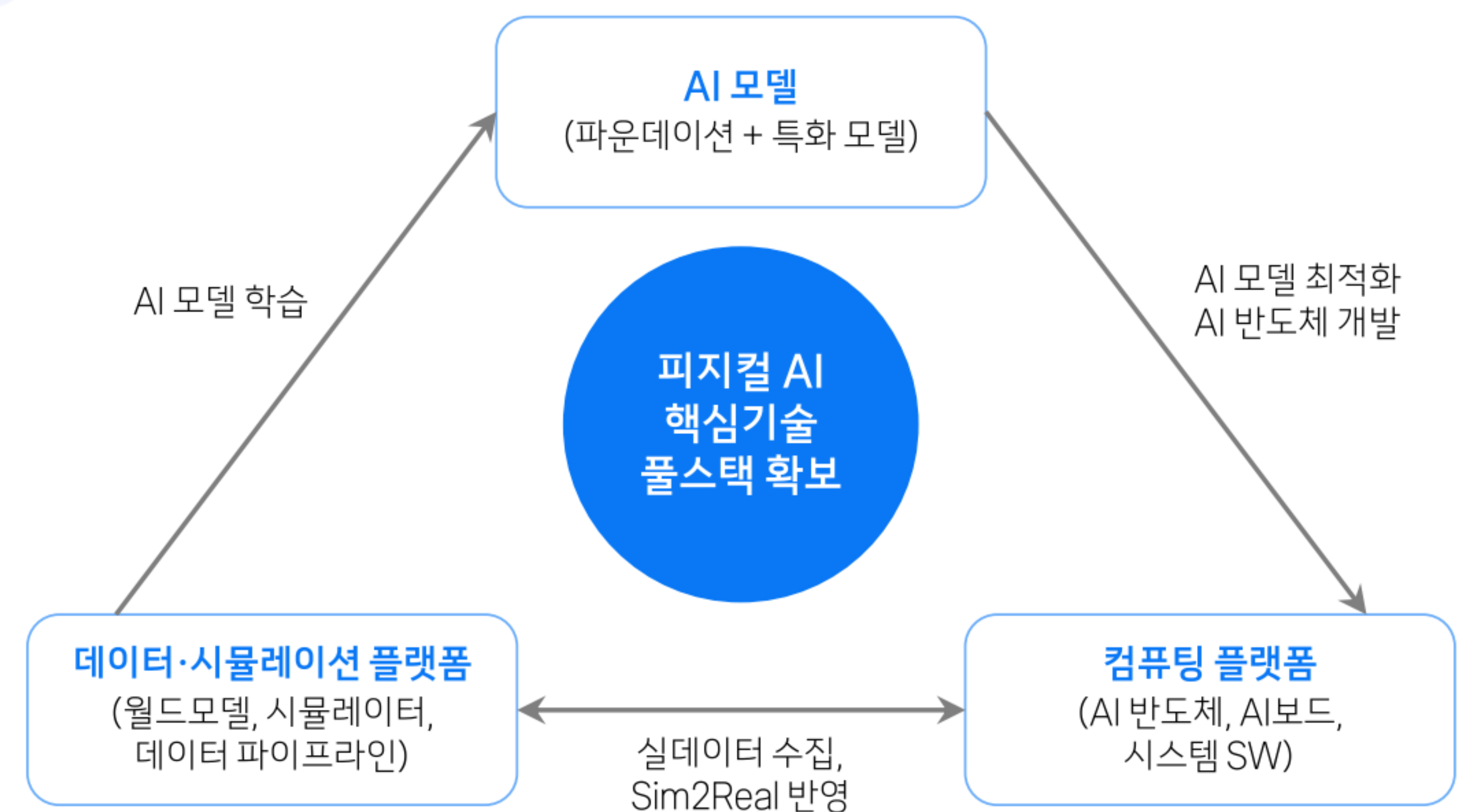
- 과기정통부는 7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피지컬 AI 1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
- 피지컬 AI 골든타임을 향후 3년으로 두고, 피지컬 AI 풀스택을 국산화시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1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 전략: 1)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 확보, 2) 제조·농업·돌봄 등 전 영역으로의 확산
- 구체적 방안: 1) (데이터) 피지컬 AI 확보 체계 구축, 2) (기술) 핵심 기술 개발, 3) (확산) 서비스 적용 확산 가속화 4) (생태계) 성장 지원
- 기술 발전 및 노동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만큼, 향후 일상 서비스 및 산업 자동화 중심으로 피지컬 AI 도입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

2026년 산업부 예산안 - AX 관련 내용



참고: AX 확산 내에 AI 팩토리, 피지컬 AI 분야가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피지컬 AI 풀스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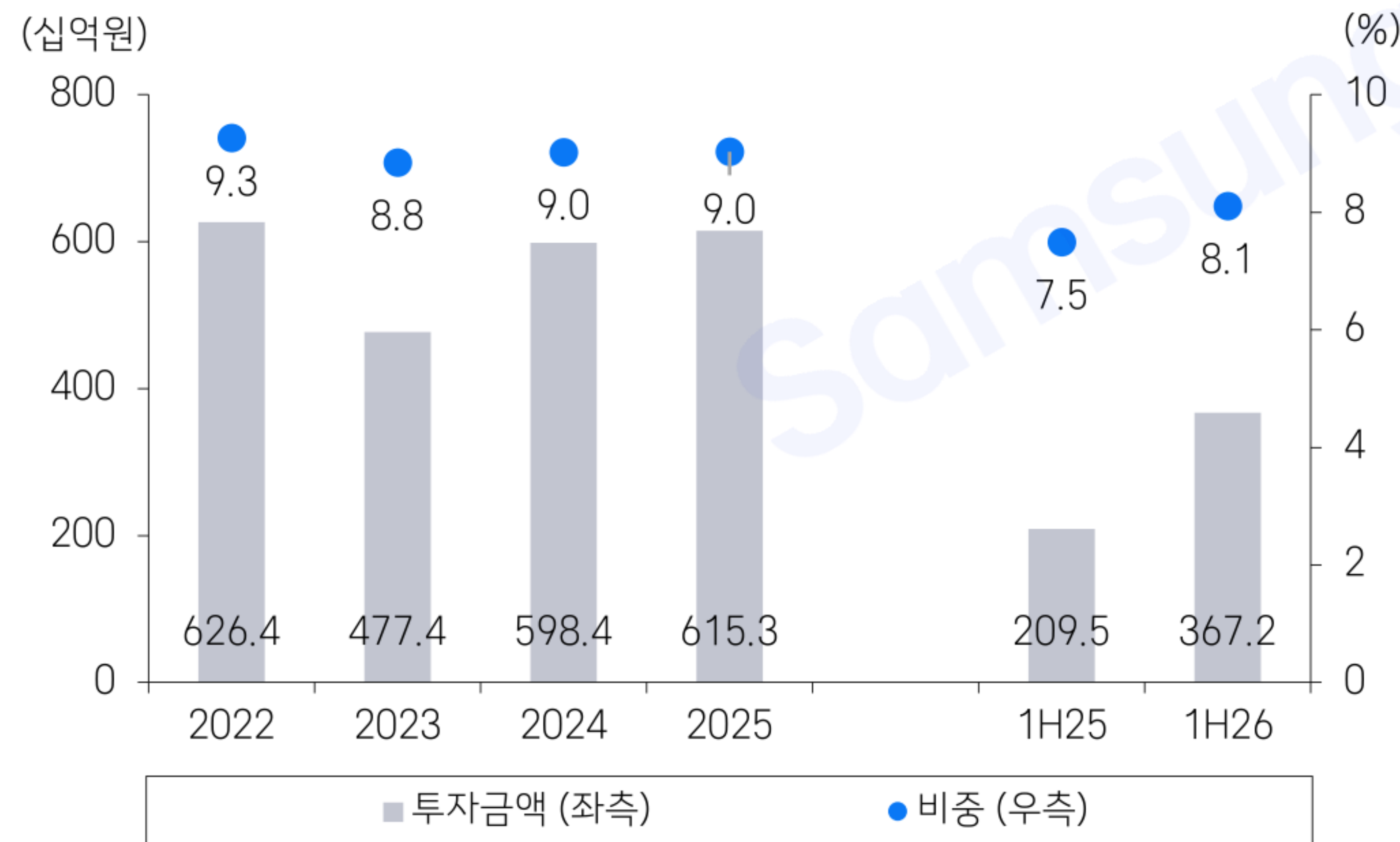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증권

3) Forecast - Physical AI

국내 VC의 해외 투자 – Physical AI 포트폴리오 확장

- 26년 상반기 기준 해외 소재 기업 벤처 투자 금액은 약 3,672억원(중기부)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75% 증가.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은 약 8.1% 수준
- 그동안 국내 VC들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현지 LP 펀드 조성, 현지 전문 투자인력 채용 등을 통해 투자 거점을 확대하며 네트워크를 확장
- 다만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온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직접 진출이 제한적, 이에 LP 역할을 자처해 GP 네트워크를 넓히고 딜을 확장해 왔음
- 이를 통해 현지 VC 및 빅테크들과의 공동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우량 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초기 투자 비중도 동시에 늘리려는 전략
- 특히 미국 비중이 90% 이상이며, 진입 장벽이 높고 산업적 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최근 휴머노이드 (Figure AI, Apptronik), 로봇 자율주행·시뮬레이션 (Parallax Worlds), 무인 방산 (Saronic) 등 피지컬 AI 분야로도 적극 참여 중

해외 벤처 투자액



참고: 벤처 투자회사 및 벤처 투자조합 기준. 비중은 전체 벤처 투자액 대비 기타/해외 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증권

국내 VC, 기업들의 해외 투자 참여 사례 (AI 관련)

기업명	국내 투자자명	투자 시기	분야
xAI (SpaceX)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파트너스	'24~'26년	AI, 우주
Anthropic	한국투자파트너스, 네이버벤처스, SKT 등	'24~'25년	생성형 AI
Lambda	SKT, 신한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24~'25년	AI 인프라
Figure AI	LG테크놀로지벤처스	'24~'25년	휴머노이드
Tenstorrent	삼성증권, AFWP, 현대차, 삼전, 한투파 등	'24~'25년	NPU
Apptronik	한투파, 에이티넘, 교보생명, 신한벤처 등	'25년 3월	휴머노이드
Quantinuum	한국투자파트너스	'25년 9월	양자컴퓨터
Parallax Worlds	카카오벤처스, GS퓨처스	'26년 2월	로봇 시뮬레이션
Saronic	IMM인베스트먼트	'26년 6월	자율 무인수상정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